

文學碩士學位論文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고찰

A Study of Kinship Terminology in Jeju Island



忠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 專攻

金 美 貞

2010 年 2 月

文學碩士學位論
채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고찰
김미정
2010년
2월

文學碩士學位論文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고찰

A Study of Kinship Terminology in Jeju Island

指導教授 趙恒範

國語國文學科 國語學 專攻

金美貞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 年 12 月

本 論文을 金美貞의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認定함.

審查委員長 _____ ①

審查委員 _____ ①

審查委員 _____ ①

忠 北 大 學 校 大 學 院

2009 年 12 月

차 례

Abstract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사 검토	2
1.3. 조사 일지와 제보자 선정	5
1.4. 논의의 구성과 배경	7
2.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존재 양상	10
2.1. [親戚] 관련 친족어휘	10
2.1.1. 성펜켄당	10
2.1.2. 외펜켄당	11
2.1.3. 처켄당	11
2.1.4. 시켄당	11
2.1.5. 방상	21
2.2. [父·母] 관련 친족어휘	13
2.2.1. [父] 관련 친족어휘	31
2.2.1.1. 아뻬	31
2.2.1.2. 아방	31
2.2.1.3. 아버지	61
2.2.1.4. 아바님	71
2.2.2. [母] 관련 친족어휘	81

2.2.2.1. 어멈	81
2.2.2.2. 어명	91
2.2.2.3. 어마니	12
2.2.2.4. 어마님	22
2.3. [祖父・祖母] 관련 친족어휘	23
2.3.1. [祖父] 관련 친족어휘	32
2.3.1.1. 하르비	32
2.3.1.2. 하르방	32
2.3.1.3. 하르바니	52
2.3.1.4. 하르바님	52
2.3.2. [祖母] 관련 친족어휘	72
2.3.2.1. 헬미	72
2.3.2.2. 할멈	72
2.3.2.3. 할망	72
2.3.2.4. 할마니	92
2.3.2.5. 할마님	92
2.4. [伯叔父・姑母] 관련 친족어휘	31
2.4.1. [伯叔父] 관련 친족어휘	13
2.4.1.1. 아지방	13
2.4.1.2. 아지바님	23
2.4.1.3. 큰아방/죽은아방	43
2.4.1.4. 큰아버지/죽은아버지	53
2.4.1.5. 큰아버님/죽은아버님	53
2.4.1.6. 삼촌	63
2.4.2. [姑母] 관련 친족어휘	93
2.4.2.1. 고모	93
2.4.2.2. 고모님	04
2.4.2.3. 아지방	14
2.4.2.4. 아지마님	24
2.4.2.5. 삼촌	34

2.5. [兄·弟] 관련 친족어휘	44
2.5.1. [兄] 관련 친족어휘	44
2.5.1.1. 성	44
2.5.1.2. 성님	54
2.5.1.3. 언니	64
2.5.2. [弟] 관련 친족어휘	74
2.5.2.1. 아시	74
2.5.2.2. 아시님	94
2.5.2.3. 동생	94
2.6. [同氣] 관련 친족어휘	50
2.6.1. [男子同氣] 관련 친족어휘	05
2.6.1.1. 오래비	15
2.6.1.2. 오라방	25
2.6.1.3. 오라바니	45
2.6.1.4. 오라바님	55
2.6.2. [女子同氣] 관련 친족어휘	75
2.6.2.1. 누의	75
2.6.2.2. 누니	85
2.6.2.3. 누나	95
2.6.2.4. 누님	16
3.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징	61
3.1. ‘ㅇ’첨가	64
3.2. ‘ㅏ>ㅑ’ 변화의 양상	65
3.3. 평칭의 호칭어 존속	66
3.4. 의미 적용 범위의 확대- ‘삼춘’, ‘아시’	67
4. 결론	70
□참고문헌	72

A Study of Kinship Terminology in Jeju Island

Kim, Mi Je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 Hang-Bum

Abstract

There are unique features in Jeju Island dialect. This is because Jeju Island had been isolated for a long time. Its dialect has word forms, such as ‘하르망, 할망, 아망, 어멍’, which are different from Korean central dialect and also its functions and usages are unique. The cultural, historical and geographical featur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word forms.

This paper is about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inship terminology in Jeju Island dialect and Korean central dialect. Through a study on existential aspects and metamorphoses of Jeju Island dialect, I know that its kinship terminology is similar to Korean central dialect. However its peculiar meaning and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Korean central dialect. This is because the cultural and social factors are different. Especially Jeju Island has its own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position.

A study on kinship terminologies in jeju Island dialect is as follows.

- (1)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성펜켄당, 외펜켄당, 시켄당, 처켄당,

방상' etc. which mean [親戚]. There is kinship terminology such as '권당' in Jeju island. It is a dialect of Korean central dialect '권당'.

(2)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아뻘, 아방, 아버지, 아바님' etc. which mean [父] and '아방' is used in general. '아방' takes the new kinship terminology.

(3)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어뻘, 어멍, 어머니, 어마님' etc. which mean [母] and '어멍' is the most used word. '어멍' also takes the new kinship terminology.

(4)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하르비, 하르방, 하르바지, 하르바님' etc. which mean [祖父]. '하르방' has a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kinship terminology in reference to [祖父] in Jeju Island. '하르방' is used kinship terminology as well as a common word. '돌하르방' is a representative word.

(5)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헬미, 할뻘, 할망, 할마니, 할마님' etc. which mean [祖母]. '할망' is the most used word. It is used as an another name in a legend and a tale, and it gives us friendness.

(6)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큰아방' and '삼촌' which indicate [伯叔父]. '삼촌' is widely used in addition to kinship terminology.

(7)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고모' which indicates [姑母]. Its meaning is the same as Korean central dialect's.

Besides there are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형' and '아시' which mean [兄弟], kinship terminologies such as '오라바니' and '누나' which mean [同氣]. It shows [table 13] in chapter 2.

'ㅇ' addition of syllable ending is mentioned in Jeju Island dialect.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오라방, 아지방, 아지망' are kinship terminologies which have 'ㅇ' addition of syllable ending. It is a very unique phenomenon which distinguishes from other regions'. Also Jeju island dialect seems not to come 'ㅏ>ㅑ' change of vowel. While Korean central dialects such as '아바님>아버님', '어마님>어머님', '아버지>아버지', '어마니>어머니' etc. change 'ㅏ' into 'ㅑ', kinship terminologies in

reference to [父母]·[祖父母] in Jeju Island dialect keep the original forms like ‘아바님, 어마님, 하르바님, 할마님’. In a rare occasion, there is ‘ㅏ>ㅑ’ change in ‘어멍’.

The notable kinship terminology in Jeju Island dialect is the very ‘삼춘’. Its function and usage are not found in any other dialects. In particular ‘삼춘’ is used not only for male speaker but also for female speaker in Jeju Island dialect.

Kinship terminologies in Jeju Island dialect are different from any other dialects because the kinship relationship is composed of the peculiar form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제주도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라 생활, 풍습, 언어 등에서 육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민속, 문화, 언어 등의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어난 지역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이들에 대한 적지 않은 다방면의 연구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언어라는 측면만 떼어놓고 보아도 제주도 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남달랐다. 국어 방언 연구가 시작된 1950년대에 특별히 제주도 방언에¹⁾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만 보아도 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현평호(1956) 이후 이룩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만 보아도 이 지역 언어에 대한 음운, 문법, 어휘 차원의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 방언 어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물명, 동물명, 지명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식물, 동물, 지역의 문화 등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식물명, 동물명, 지명 등이 독특한 언어적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일 것이다. 이 지역 어휘로서 독특한 것은 친족어휘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초어휘 중의 기초어휘라고 할 수 있는 친족어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육지 방언의 친족어휘가 일찍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고 또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는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이 지역이 ‘하르방, 할망, 아방, 어멍’ 등과 같이 중앙어 친족어휘와는 다른 어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용법 면에서도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여기에는 제주도가 갖는 역사, 문화적인 특성과 함께 지리적인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1) ‘제주도 방언’은 ‘제주 방언’ 또는 ‘제주어’로 불리기도 한다. 강영봉(2007:10)은 ‘제주도 방언’을 ‘제주도 지역에서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 쓰이는 언어’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는 이하 모든 명칭을 ‘제주도 방언’으로 통칭한다.

본고는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전모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친족어휘를 ‘친척’, ‘父’, ‘母’, ‘祖父’, ‘祖母’, ‘伯叔父’, ‘姑母’, ‘兄弟’, ‘同氣’ 등의 부류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부류에 드는 개별 친족어휘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그 형태를 분석하고, 친족어휘로서의 기능과 등급을 살핀 다음, 그 용법을 밝히기로 한다. 이를 위해 중세국어 친족어휘 및 현대국어 중앙어의 친족어휘를 적절히 활용한다.

개별 친족어휘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부류별 친족어휘의 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 체계가 중세국어 및 현대국어 중앙어의 체계와 어떻게 다른가도 비교하여 검토한다. 개별 친족어휘에 대한 검토와 부류별 친족어휘의 체계가 복원되면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징이 드러나리라 믿는다.

결국, 본 연구는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부류별 친족어휘를 검토한 뒤, 부류별 친족어휘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들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사 검토

각 지역의 개별 방언들은 그 지역적 특성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친족어휘 연구는 민속학이나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방언 연구를 고려한 국어학적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의 방언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각 지역별 친족어휘 연구사를 살펴보면, 지역마다 독특한 친족 호칭의 존재 양상과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방언의 친족어휘에 대한 논의에는 강신항(1967), 이익섭(1976), 최명옥(1982a, b), 이상규(1984), 정종호(1990), 곽충구(1993), 이기영(2001) 등이 있다.

강신항(1967)은 가족 사이에서 사용되는 친족어휘를 통해 언어생활의 일면을 밝혀 보려고 했다. 친족어휘를 각 지역별로 고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지역별 친족어휘를 반촌의 전통을 지닌 안동 방언과 대비시켜 놓았다. 이로써 지역 간 친족어휘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익섭(1976)은 ‘아재’라는 호칭어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강원도와 함경도의 일부

지역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을 동일 형태의 의미가 분화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친족어휘 중에서 유독 이것만 性의 구별이 없어진 이유, 적용 범위가 넓어진 이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부 특수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최명옥(1982a)는 경북 북부의 반촌 지역 친족어휘를 중심으로 그 구조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친족 어휘가 호칭과 명칭으로 불릴 때의 차이와 친족 어휘가 층위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상규(1984)는 경북의 반촌 지역(영천, 영일) 친족어휘의 어형과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어 실현되며, 이들이 다른 지역의 친족어휘와 어떤 방언 차이를 보여 주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동일 어형이라도 지역이나 사회계층에 따라 의미차질이 다르게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종호(1990)은 경북 안동 지방의 친족 호칭어 연구에서 안동김씨와 상락김씨의 친족 호칭 체계의 통시적 변화 및 공시적 변이 양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시적인 분석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반·상의 구분에 따른 친족 호칭 체계상의 변화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를 찾고 있다.

한편, 곽충구(1993)은 함경도 방언의 특정 부류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호칭어의 구조 및 지시 의미 영역, 그리고 지리적 분화 양상과 그 요인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여기에서는 이 지역 친족어휘가 보이는 공통적 특징은 물론이고 각 지역마다 독특하게 발달해 온 체계를 꼼꼼히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친족어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기영(2001)은 강화도라는 특정 지역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친족어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친족어휘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친족어휘에 대한 논의들은 국어 친족어휘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가능성과 아울러 지역별 친족어휘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그 친족어휘가

방언으로서의 논의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다.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도 부족하거나, 전체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몇 편의 논의가 있을 뿐이다. 제주도 방언에 대한 친족어휘 연구는 지역적 특성과 방언의 형성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러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

친족 용어나 가족 구성 배경 등에 관한 논의는 몇 편이 있다. 그 연구들은 최재석(1979), 김창민(1992), 김혜숙(1999)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 인류학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족 구성 체계에 대한 관심에서 접근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특성을 고려한 친족어휘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최재석(1979)는 제주도의 가족 구성과 가족 호칭 체계를 설명하면서, 가족 용어가 단순하고 간소화된 이유를 제주도의 자연 환경적인 요인과 촌락 구성의 문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親族組織’ 체계가 가족호칭을 명명하고 규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호칭도 ‘親族組織’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창민(1992)는 제주도의 ‘촌락 형태’가 가족 구성과 가족 호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켄당’의 형성과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개별 마을 내에서 개개인 마을 구성원을 ‘켄당’ 아니면 ‘사둔’으로 범주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 마을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켄당’과 ‘사둔’으로 묶여 있어서 친족 호칭을 구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은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친족 호칭이 만들어진 원인을 촌락 내 마을 구성 체계에서 찾고 있으며, 가족 호칭 체계도 촌락 형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김혜숙(1999)는 ‘가족’과 ‘켄당’의 연구를 통해 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혼망’ 구조를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구성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마을 내에서 전통적

2) ‘통혼망’이란 한 마을 안에 화자를 중심으로 친가와 외가가 함께 살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형성 배경은 이러한 ‘통혼망’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혜숙(1999)는 한 마을 안에 친가와 외가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친족 호칭어가 독특하게 발달하고 간소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으로 행해졌던 ‘婚姻制度’에 따라 ‘친가’와 ‘외가’가 공존하는 마을 형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가족 제도 구성이 친족어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해본 결과 ‘친족어휘’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위의 연구들과 김혜숙(1999)의 논의는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 연구에 보다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은 아니지만 친족 호칭의 체계와 발달 양상, 그리고 친족어휘의 형태와 구성 배경을 파악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1.3. 조사 일지와 제보자 선정

방언 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당한 질문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어휘> 편을 주로 참고했다. 조사 방법은 제보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직접 질문법을 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이다. 직접 방문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날짜를 다시 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간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직접 질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다. 또한 채록된 자료를 본문에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부호를 이용하여 구별하였다.

* 조사자 질문 : “ ”

* 제보자 대답 : “ ”

* 제보자 정보 : ()

* 표준어 대역 : ()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보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했다.

* 제주도에서 태어난 토박이를 선정했다.

- * 제주 전 지역을 나누어 방언 채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1인씩 선정했다.
- * 제보자들의 직업은 농업, 어업, 임업, 과수업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 * 최소한의 교육 경험자를 선정했으나, 고학력의 제보자도 있었다.
- * 치아 상태나 건강을 살펴서 되도록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선정했다.

조사 일지와 제보자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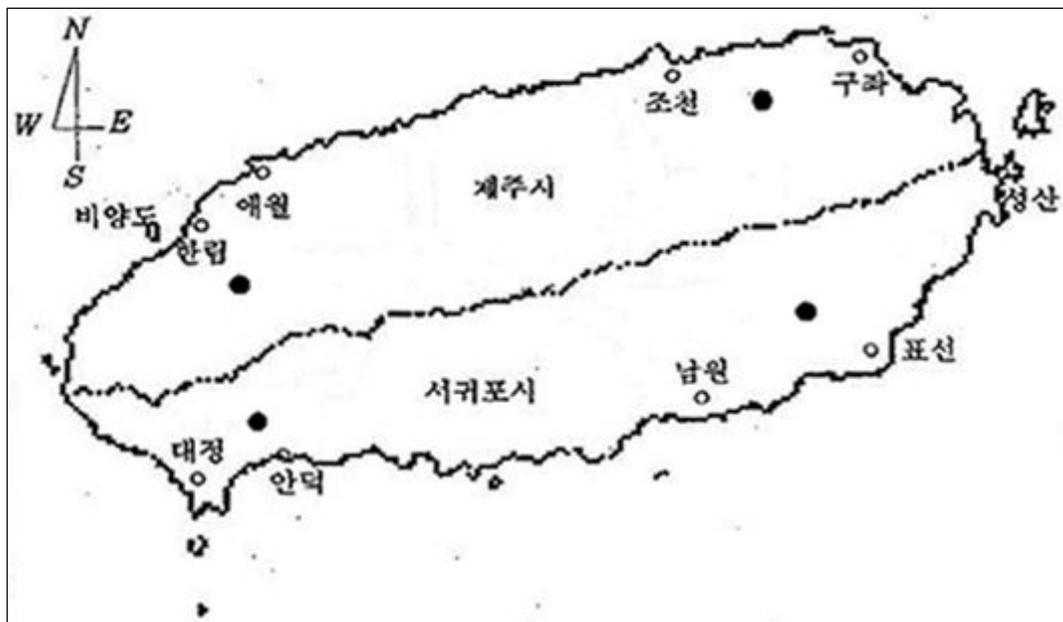
조사 시기 (날짜)	제보자					
	이름(姓)	나이	직업	학력	조사 지점	제보자의 특징
2008/1/26	변중립(男)	63세	과수업	초등학교 중퇴	한림면 동명리	표준어에 익숙하지 않음.
2008/3/27	오서용(男)	65세	임업	대졸	안덕면 감산리	표준어에 익숙함.
2008/6/21	김병석(男)	79세	어업	無學	조천면 함덕리	방언 음운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음.
2008/7/23	조운수(男)	61세	농업	無學	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內	비교적 표준어에 가까운 발음 구사

[표 1]

[지도 1]은 제주도에서 본고가 조사한 지점을 나타낸 곳이다.³⁾ 이들 지역은 제주도

3) 조사 지점과 답사 지역에 따라 제주도 친족어휘는 호칭과 지칭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어휘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 조사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어휘는 제주도를 동·서로 나누었을 때 가장 심하게 차이 나는 곳(즉, 1차 답사 지역인 한림면 동명리와 2차 답사 지역인 안덕면 감산리)을 정하여 어휘 채록을 했다. 제주도 전 지역을 '서쪽'과 '남쪽', '동쪽', 그리고 '북쪽'으로 나누어 친족어휘를 채취했다. 즉, 제주도 지역 내에서 '서쪽 지방 방언'과 '남쪽 지방 방언', '동쪽 지방 방언'과 '북쪽 지방 방언'을 채록한 것이다. 제주도의 방언 구획은 대부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북지역과 산남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이를 가리켜 북부어와 남부어로 나타내기도 하고 단순히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기도 한다. 金光雄(2001)은 제주도 내에서 방언 차는 음운론적인 면에서 전 지역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에서 방언 차이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지도 1]

* 방언 조사 지역(한림면 동명리, 안덕면 감산리, 조천면 함덕리, 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내)

자료는 본고가 직접 조사한 것을 위주로 한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와 중앙어의 친족어휘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기로 한다.⁴⁾

1.4. 논의의 구성과 배경

본 연구는 다음에 따라 전개된다.

첫째, 친족어휘를 부류별로 나누어 제시하되, [親戚], [父], [母], [祖父], [祖母], [伯叔父], [姑母], [兄], [弟], [同氣]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기본

4) 박용후(1988), 玄平孝(1995) 외, 김혜숙(1999), 국립국어원(2006, 2007).

적인 가족 구성원만을 제시한 것은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본고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친족어휘의 부류별 양상을 논의할 때는 제주도 방언의 고유어를 중심으로 기술해 나간다. ‘퀘당’,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큰아방’, ‘고모’, ‘성’, ‘아시’, ‘오라바니’, ‘누나’의 순으로 논의하되, 필요한 경우 문헌의 용례를 통해 용법을 비교해 본다.

셋째, 부류별 친족어휘를 논의할 때는 중앙어와의 용법도 함께 고찰해 나간다. 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단어가 세력을 잃은 친족어휘에 대해서는 그 원형을 밝혀 쓴다. 기술 방법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제주도 방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논의는 지시 의미, 의미 변화, 형태 구조, 친족어휘로서의 기능 및 등급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전개한다.

다섯째, 부류별 어휘를 제시할 때 그 의미는 [], 그리고 문헌은 < >로 표시한다. 또, 택호나 인명을 제시할 때는 ‘○○, △△(예: ○○아방, △△삼춘)’으로 나타내고, ‘/’는 대응(예: 큰/죽은)되는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부호로 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밝힌다. 이 글을 논의하는 전체적인 순서와 함께 본 연구의 구성과 진행 방법을 제시한다. 또, 조사 일지와 제보자 선정 배경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를 부류별로 제시하여 그 형태와 의미를 알아보고 기능을 살펴본다. 이는 부류별 친족어휘에 대한 용법을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어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도 함께 기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주도 방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어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고유어를 그대로 쓰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호칭’과 ‘지칭’의 사용 빈도수를 알아보는 것은 친족어휘를 연구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 포함한다. 부류별 호칭의 등급과 기능을 제시할 때는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중앙어 친족어휘와 차이나는 점을 부각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2.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존재 양상

2.1. [親戚] 관련 친족 어휘

우리 민족은 혈연과 가문을 대단히 중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친족어휘가 아주 복잡하게 발달했다. 우리 민족에게는 친족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친족용어가 구체적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15세기 이래 ‘親戚’을 의미하는 어휘에는 ‘아삼, 곁에, 권당(眷堂), 친척(親戚)’ 등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집안’과 ‘친척’의 의미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로 ‘권당⁵⁾을 쓰고 있다. 이 용어는 중앙어 친척을 뜻하는 ‘권당’에 대한 제주도의 방언형이다.

제주도 방언의 ‘권당’은 ‘성펜권당, 외펜권당, 처권당, 시권당, 방상’ 등으로 나뉜다⁶⁾.

2.1.1. 성펜권당

‘성펜권당⁷⁾은 ‘친가’를 의미하는 친족 용어로서 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친족 관계를 가리킨다. 이는 중앙어의 ‘친할아버지’나 ‘친가’를 의미하는 친족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조부를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도 중앙어에서 친가의 조부는 ‘할아버지’라고 하고 외가의 조부는 ‘외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성펜권당’이라 하여 ‘성하르방’, ‘성하르바님’ 등으로 지칭한다. 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가(친가)’와 ‘외가’를 동등한 비중으로 호칭하거나 지칭한다. 이는 중앙어의 친족 호칭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5) 권당은 혈통으로 연결된 부계친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연결된 모든 친척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론짓고 있다(김창민 1992).

6) 최재석(1979)는 ‘부계친, 모계친, 처계친’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창민(1992)는 ‘부계친, 모변친, 진외가친, 처가친’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김혜숙(1999)는 ‘성펜권당, 외펜권당, 처권당, 시권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친족 범주를 김혜숙(1999)가 제시한 논의를 기준으로 ‘친족어휘’를 밝혀보고자 한다.

7) 친할아버지는 ‘성펜하르방’, 혹은 ‘성펜하르바님(존칭형)’으로 지칭한다.

2.1.2. 외펜퀘당

‘외펜퀘당’⁸⁾은 ‘母系’, 즉 어머니를 통해 맺어진 친족원들에 대한 용어를 가리킨다. 중앙어에서 말하는 ‘외가’를 제주도에서는 ‘외펜퀘당’이라고 한다. ‘외펜퀘당’은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외’자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호칭할 때는 친가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외’자를 빼고 그냥 ‘하르방’이라고 한다. 이는 ‘할망’을 호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2.1.3. 처퀘당

‘처퀘당’⁹⁾은 화자가 남성일 때 아내를 통해 맺어진 친족원들을 일컫는 것으로 곧 ‘妻族’을 뜻한다.

제주도에서는 아내의 부모님에게도 친부모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한다. 중앙어에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지칭어에서만 ‘가시아방, 가시어명’이라고 한다. 이는 중앙어에서 예전에 ‘가시아비’, ‘가시어미’라 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 ‘가시아비, 가시어미’에 대한 호칭은 북한 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김혜숙 1992:439). 본고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처퀘당’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2.1.4. 시퀘당

‘시퀘당’¹⁰⁾은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과 함께 맺어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媿퀘당’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성퀘퀘당’, 즉 ‘父系親’의 원리가 호칭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남성이 처가쪽 부모님을 지칭할 때나 여성이 시부모님을 지칭할 때도 단지 ‘처’와 ‘시’만 붙이면 되는 것이다.

또, 결혼을 해서 시퀘당과 맺어진 여성을 가리킬 때도 호칭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

8) 외할아버지는 ‘외펜하르방’, 혹은 ‘외펜하르바님(존칭형)’으로 지칭한다.

9) 남성이 혼인관계를 통해 맺어진 처가의 친족 범위를 말한다. 중앙어에서는 ‘처가댁’, 혹은 ‘처가’라고 하며, 여성의 입장에서는 ‘친정’을 말한다.

10) 여성이 혼인관계를 통해 맺어진 시댁의 친족 범위를 말한다. 중앙어에서는 ‘시댁 식구’, 혹은 ‘시댁’을 가리키며, 남성의 입장에서는 ‘친가’를 의미한다.

니며, 특히 남편 동생들과의 사이에서도 시남동생이나 시여동생을 특별히 ‘도련님,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고 친정 동생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앙어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숙 1999:442).

2.1.5. 방상

‘방상’¹¹⁾은 ‘親戚’의 의미가 포함된 어휘로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동남쪽 방언 조사를 한 결과 4차 답사 지역이었던 성읍리 마을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켄당’을 ‘방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곳은 비교적 관광객의 방문이 빈번하고 개방적인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성씨가 같은 사람이면 한 동네 사는 사람이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방상’으로 부르고 있다. ‘켄당’과 ‘방상’의 의미 차이는 없고 다만 지역적 차이만 있다.

다음은 성읍리 민속마을 내에 사는 조운수(61세) 제보자를 통해서 채취한 녹음 내용이다.

- (1) “성읍리에서는 ‘친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따르덴 켄당이라고 험신디 아, 여기선 ‘방상’이라고 허주께.”(다른 데는 켄당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선 방상이라고 한다.)

위의 채록 내용으로 볼 때, 성읍리에서는(제주 동남쪽방언) ‘켄당’을 ‘방상’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親戚] 관련 친족어휘를 부류별로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

제주 방언의 친족어휘	친족 범위
-------------	-------

11) 4차 답사 지역인 성산면 성읍리 마을 내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켄당’을 ‘방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육지의 ‘집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방상’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며 이 개념을 기준으로 ‘친척’을 분류하진 않는다.

성펜켄당	父系
외펜켄당	母系
치켄당	妻族
시켄당	媳族
방상	親戚

[표 2]

2.2. [父·母] 관련 친족어휘

2.2.1. [父] 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父] 관련 친족어휘에는 ‘아뻘, 아방, 아버지, 아바님’ 등이 있다.

2.2.1.1. 아뻘

‘아뻘’은 중앙어 ‘아빤’과 대응되며, 이것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아뻘’은 문헌 자료와 기왕의 자료 조사집에서 확인되지만 실제 잘 쓰이지는 않는다. ‘아뻘’은 제보자들과의 대화에서도 거의 들어 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평칭의 호칭어 ‘아방’에 밀려 그 세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2.1.2. 아방

‘아방’은 중앙어 ‘아빠’에 대응된다. 아울러 중세국어 ‘아바’에 대응된다. ‘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바’에 ‘ㅇ’이 첨입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¹²⁾ ‘하르방, 할망, 어멍, 오라방’ 등과 형태상 같은 계열어에 속한다.

‘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바’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아바’와 같이 평칭의 호칭어로서 기능을 한다. 물론 지칭의 기능도 갖는다.

다음 (2)ㄱ의 ‘아방’은 호칭으로, (2)ㄴ의 ‘아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2) 郭忠求(1993)은 ‘아방’이 ‘아바’에 ‘ㅇ’이 첨입된 것인지 아니면 ‘아비’에 ‘양’이 통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2) ㄱ. “아방! 영심이네 삼촌 잔치혼텐 홉데다. 아방 거기 갈꺼파? 계민 어명이영 가치 갑써게.”
 (아빠! 영심이네 삼촌 잔치한다고 합니다. 아빠 거기 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가세요.)
- ㄴ. “영심아! 니네 아방 오민 영심이네 삼촌 잔치 어떻 헐건지 아라 보라이. 그날 비온텐 헤라마는 어떻헤사 될건지 모르켜게.”(영심아! 네 아빠 오시면 영심이네 삼촌 잔치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 보아라. 그날 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방’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고루 분포하며, 그 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 곧 이것이 ‘父’에 대한 대표적인 친족어휘인 것이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 제보자는 “여기선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방이렝 허지.”(아방이라고 한다.)라고 대답하고, “아버지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방한테 아방이렝 허지 다른 건 어서.”(아방을 아방이라고 하지 다른 말은 없다.)라고 답변할 정도이다.

정승철(1998:137)에 따르면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 ‘아방’을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방’은 호칭보다는 지칭으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최재석(1979)는 ‘아방’이 비칭의 기능으로 쓰이던 때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반드시 때와 장소를 가려 써야 하는 어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하르방, 할망, 어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방’이 비칭으로 쓰였던 근거에 대해 제보자들에게 질문해 보았다. 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3세) 제보자는, “아방이 비칭으로도 쓰입니까?”라고 묻자, “경헌디 요샌 그냥 편하게들 다 아방 아방 허난, 나가 뭐 비칭이렝 허믄 아라져?”(그런데 요샌 그냥 편하게들 다 아방 아방 하는데, 내가 뭐 비칭이라고 하면 알겠느냐?)처럼 대답했다. 이것으로 보면, ‘아방’이 특수한 계층에서 비칭의 기능으로 쓰였다는 근거는 없다. 기왕의 자료집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방’은 ‘씨아방’, ‘홀아방’, ‘가시아방’, ‘다슴아방’, ‘할아방’ 등에서 보듯 새로운 친족어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씨아방’은 ‘시아방’의 된소리 어형으로 중앙어의 ‘시아비’에 대응된다. ‘씨아방’ = ‘시아비’에서 ‘아방’이 ‘아비’와 대응된다. ‘씨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방’을 포함함으로써 호칭으로 기능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지칭

의 기능만 갖고 있다. ‘씨아방’의 ‘아방’은 호칭이 아니라 지칭으로서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씨아방’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3) “남숙이네 씨아방 이수가? 우리 씨아방 어신디 무사 경험수가? 옷뜨르 성식이네 발갈랭 가젠 헤신디 못가난 남숙이네 씨아방ㄴ라 대신 가 달랭 허젠 험수가? 계민 예 이따 즈낙에 다시 읍써게? 아라수다예?”(남숙이네 씨아빠 있나요? 우리 씨아빠 없는데 왜 그러세요? 윗마을 성식이네 발 갈러 갈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어서 대신 가 달라 할려고 그러합니다. 그럼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씨아방’은 요즘 도시의 젊은이들에게는 들을 수 없다. 단지 나이든 세대나 형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간혹 확인되는 정도이다.

‘홀아방’은 중앙어의 ‘홀아비’와 대응된다. ‘홀아방’ = ‘홀아비’에서도 ‘아방’이 ‘아비’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중앙어 친족어휘에서 어휘 파생의 핵어가 ‘아비’인데 반해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에서는 그것이 ‘아방’인 것이 눈에 띈다. 이로써도 ‘아방’의 ‘父’에 대한 대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홀아방’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4) “그 집 아방 무사 혼자 이수가? 아, 그 아방 홀아방인지 아직 몰라수가? 몰랐주게. 그 집 아방이 홀아방인지 어떻 아라전? 아, 미지네 어멍이 ㄴ란 아라마썸. 기파? 난 경도 몰랑 실수할 뻔 헤수다게.”(그 집 아빠 왜 혼자 있습니까? 아, 그 아빠 홀아빠인지 아직 몰랐어요? 몰랐지요. 그 집 아빠가 홀아빠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미지네 엄마가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난 그것도 몰라서 실수할 뻔 했습니다.)

‘가시아방’은 아내의 아버지를 지시하며, 중앙어 ‘가시아비’에 대응된다. ‘가시아방’은 ‘장인’에 대한 평칭이어서 ‘장인’에 대한 비칭인 ‘가시아비’와 의미가치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물론 ‘가시아비’도 ‘아비’가 비칭화하기 전까지는 평칭으로 존재했다.

‘가시아방’의 ‘가시’는 ‘갓’에 속격의 ‘익’이 결합된 ‘가시’가 ‘가식’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조항범 2009:22). ‘가시’는 북한 지역에서 쓰는 ‘가시아버지’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

다. ‘가시’의 의미 기능에 충실하면 ‘가시아방’은 ‘아내의 아버지’로 해석된다. ‘장모’를 뜻하는 ‘가시어멍’과 대응된다. 그런데 이 ‘가시아방’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 제보자를 통해 ‘가시아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해 보았다. “아내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여기선 가시아방이라 하지. 경헌디 요새 젊은 애덜은 경 안하지.”(여기서는 가시아방이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한림면이나 함덕리에서 40대 이상의 세대에게 질문해 보았지만, 가시아방이나 가시어멍은 자주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가시아방’이 나이든 세대에서는 아직 쓰이고 있지만, 젊은층에서는 점차 낯선 친족어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요즘 젊은층에서는 ‘가시아방’ 대신 ‘장인어른’으로 부르기도 하고 친부모님처럼 ‘아바님’으로 호칭하거나 지칭하고 있다.

‘다슴아방’에서 ‘다슴’은 ‘대를 잇는’, 또는 ‘데리고 들어온’의 뜻이다(濟州道 1995:120). 제주도 방언에서 ‘다슴아방’이란 ‘의붓아방(아버지)’을 지시한다. ‘다슴’은 ‘다슴어멍, 다슴하르방, 다슴할망, 다슴자식’ 등에서도 확인된다.

‘할아방’은 ‘아내가 있는 남자’라는 뜻이다. 실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왕의 자료집(濟州道 1995)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2.2.1.3. 아버지

‘아버지’는 중앙어 ‘아버지’에 대응된다. 제2음절에서 ‘ㅏ>ㅑ’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앙어의 ‘아버지’는 근대국어 후반기 문헌에나 나타난다. 근대국어에 보이는 ‘아버지’는 좀 이질적인 성격이다. ‘아버지’에 대응되는 친족어휘로 ‘아바니’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아바니’와 새롭게 등장한 ‘아버지’는 19세기 말 이후 ‘ㅏ>ㅑ’ 변화에 따라 ‘아버니’와 ‘아버지’로 변한다. 그런데 ‘아버니’는 ‘아버지’에 밀려나 사라진다.

이 ‘아버지’가 제주도 방언에 ‘아바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바지’는 ‘아바’에 접미사 ‘-지’가 결합된 어형이므로 ‘아바’와 같이 호칭의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다음은 ‘아버지’가 호칭으로 쓰인 예이다.

- (5) “아버지 오늘 밭에 안강 집에 이수다예? 무사 어디 아픈짜? 어디 아프민 나한테 ㄱ릅써게?”(아버지 오늘은 밭에 안 가고 집에 있네요? 왜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런데 현재의 제주도 방언에서 ‘아버지’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아버지’가 언제부터 쓰인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중앙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방언의 [父] 관련 친족어휘에서 ‘아버지’가 이질적인 존재임은 분명하다. ‘아버지’는 ‘아방’에 밀려나 세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2.2.1.4. 아바님

‘아바님’은 중앙어 ‘아버님’에 대응된다. 중앙어 ‘아버님’은 ‘아바님’에서 제2음절의 모음 ‘ㅏ’가 ‘ㅓ’로 변환 어형이다. 제주도 방언의 ‘아바님’은 모음 변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의 어형으로, 중앙어와는 반대로 제2음절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제주도 방언의 ‘아바님’은 중세국어 ‘아바님’과 어형이 같다. 이는 평칭의 호칭어 ‘아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구조이다(조항범 1996:119). ‘아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바님’의 일차적 기능은 호칭이나, 호칭의 지칭화 과정을 거쳐 지칭으로도 쓰였다. 제주도 방언에서도 ‘아바님’은 두 기능을 모두 갖는다.

다음 (6)ㄱ의 ‘아바님’은 호칭으로, (6)ㄴ의 ‘아바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6) ㄱ. “아바님! 이수강? 무사 할마님신디 경 햅여수가? 계난 할마님도 정신니 앓득흔게 아팡 누워수다게.”(아버님 있습니까? 왜 할머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깐 할머님도 정신이 아득한게 아파서 누웠습니다.)

ㄴ. “아바님이 그영 혼난 사름드른 이지금까지도 이 지배 안 오는 거라마썸.”(아버님이 그렇게 하니깐 사람들은 이 집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 존칭형 ‘아바님’은 그렇게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 제주도의

서북쪽(한림면의 동명리와 안덕면의 감산리)의 나이든 세대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한림면에 살고 있는 변중립(66세) 제보자는 “아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나 어릴 때 우리 아방은 아바님이라고 고랏주게. 경헌디 지금은 어서.”(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방은 아바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존대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존칭형 친족어휘의 사용 빈도가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급한 [祖父]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지칭	호칭
평칭	아뻬 아방 아바지	아뻬 아방 아바지
존칭	아바님	아바님

[표 3]

2.2.2. [母] 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母] 관련 친족어휘에는 ‘어뻬, 어멍, 어마니, 어마님’ 등이 있다.

2.2.2.1. 어뻬

‘어뻬’은 중앙어 ‘어멈’과 대응되며, 이것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어뻬’은 한때 비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어멍’이 등장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어뻬’은 문헌 자료와 기왕의 자료 조사집에서 확인되지만 실제 잘 쓰이지는 않는다. 또, ‘어뻬’은 중앙어에서 쓰이는 ‘어멈’의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시부모님께서 며느리를 호칭하실 때 쓰는 ‘어멈’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2.2.2.2. 어멍

‘어멍’은 중앙어 ‘엄마’에 대응되는 어휘다. 아울러 중세국어 ‘어마’에 대응된다. ‘어멍’은 평칭의 호칭어 ‘어마’에 ‘ㅇ’이 첨가된 ‘어망’에서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한 어형이다. 제1음절 모음 ‘ㅏ’에 이끌려 제2음절 모음이 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멍’은 호칭의 ‘어마’를 핵어로 한다는 점에서 호칭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하르방’, ‘할망’, ‘아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존칭인 ‘어마님’이나 평칭인 ‘어마니’보다 ‘어멍’이 제주도 방언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최재석(1979)은 ‘어멍’이 비칭의 기능으로 쓰이던 때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반드시 때와 장소를 가려 써야 하는 어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실제 제보자들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안덕면 감산리의 오서용(65세) 제보자는, “어멍이 비칭으로도 쓰입니까?”라는 질문에, “나 어릴 때도 어멍은 반상에서는 안 쓰고 상놈들이나 구진일 허는 사름들이나 썼주게.”(나 어릴 때도 어멍은 양반가에서는 안 쓰고 상놈들이나 굿은일 하는 사름들이나 썼다.), “그럼 아직도 이 어멍이 특수한 계층에서만 쓰는 친족어휘입니까?”라고 묻자, “경헌디 요새는 경망스러운 젊은 애덜이나 쓰주 아무나 경 안허주게.”(그런데 요새는 경망스러운 젊은 애들이나 쓰지 아무나 그렇게 안 쓴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어멍’은 지칭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중앙어 ‘엄마’나 ‘아빠’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최재석(1979)의 논의와 제보자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을 때, ‘어멍’은 특수한 계층에서 비칭으로 쓰였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는 ‘하르방, 할망, 아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7)ㄱ의 ‘어멍’은 호칭으로, (7)ㄴ의 ‘어멍’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7) ㄱ. “어멍! 물질허레¹⁴⁾ 감수가? 무사 즈낙이 다 데신디 가젠 험수가?”(엄마! 물 일하러 가세요? 왜 저녁이 다 됐는데 갈려고 하세요?)

13) 제주도에서 특수한 계층이란 주로 하층민을 말하는데 ‘즈너(해녀)’가 그 대표적이다.

14) ‘물질’은 해녀들이 잠수해서 해산물이나 진북 따위를 캐는 일을 말한다.

나. “아지망! 경헌디 줌녀들은 무사 우리 어멍처럼 평생 물질만 허멍 살아야 됩수가?”(아줌마!
그런데 해녀들은 왜 우리 엄마처럼 평생 물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멍’은 ‘씨어멍’, ‘홀어멍’, ‘가시어멍’, ‘다슴어멍’에서 보듯 새로운 친족어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¹⁵⁾ ‘씨어멍’은 ‘시어멍’의 된소리 어형으로 중앙어의 ‘시어미’에 대응된다. ‘씨어멍’ = ‘시어미’에서 ‘어멍’이 ‘어미’와 대응된다. ‘씨어멍’은 평칭의 호칭어 ‘어멍’을 포함함으로써 호칭으로 기능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지칭의 기능만 갖고 있다. ‘씨어멍’의 ‘어멍’은 호칭이 아니라 지칭으로서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읍리에 사는 조운수(61세) 제보자에 따르면, “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우리 아방도 가시어멍 가시어멍 해주게. 경헌디 요새 젊은 애덜은 경 안허지.”(우리 아방도 가시어멍 가시어멍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씨어멍’은 일부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어휘로 느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씨어멍’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8) “니네 씨어멍 오늘 집에 온덴 헤시냐? 아니우다. 큰어멍네 일이 이서부난 못온텅 홉데다. 무사 경험수가? 아니, 니네 씨어멍 온덴헤민 나 다음에 가젠 헤신디, 게민 이따 즈낙에 가켜. 아라수다.”(네 씨엄마 오늘 집에 온다고 하셨니? 아닙니다. 큰엄마네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니네 씨엄마 온다고 하면 나 다음에 갈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갈게. 알겠습니까.)

‘홀어멍’은 중앙어의 ‘홀어미’와 대응된다. ‘홀어멍’ = ‘홀어미’에서도 ‘어멍’이 ‘어미’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중앙어 친족어휘에서 어휘 파생의 핵어가 ‘어미’인데 반해 제주도 친족어휘에서는 그것이 ‘어멍’인 것이 눈에 띈다. 이로써도 ‘어멍’의 ‘母’에 대한 대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홀어멍’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9) “아방! 제영이네 어멍 병원에서 퇴원했텅 홉데다. 가보쿠가? 무사 나가 거기 강 머허렌 경험

15) ‘어멍’은 위의 용례 이외에도 ‘할어멍’이라 하여 ‘남편이 있는 여자’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시니? 아니, 홀어멍 마음 홀아방이 안다고 하난 한 번 가 봅써게. 그 무신 말을 경 ㄱ람시니? 계민 나가 거기 강 그 홀어멍이랑 머허렌 경험시니? 아, 아니우다.”(아빠! 제영이네 엄마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가보실래요? 왜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니? 아니, 홀엄마 마음 홀아빠가 안다고 하니깐 한 번 가 보세요?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그 홀엄마랑 뭐 하라고 그러느냐? 아, 아닙니다.)

‘가시어멍’은 아내의 어머니를 지칭한다. 중앙어의 ‘가시어미’에 대응되는 어휘다. ‘가시어멍’의 ‘가시’는 ‘갓’에 속격의 ‘익’이 결합된 ‘가식’이 ‘가식’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가시’는 북한 지역에서 쓰는 ‘가시어머니’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다. 물론 ‘장모’에 대한 비칭인 ‘가시어미’와 의미차이까지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가시어미’도 ‘어미’가 비칭화하기 전까지는 평칭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시’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가시어멍’은 ‘아내의 어머니’로 해석된다. 그런데 ‘가시어멍’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의 ‘가시어멍’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0) “경수네 가시어멍은 옛날 고생이 심했멍 홉테다. 계난 요새도 정시니 앓득흔게 아팠 누워수 다게. 경헌디 그 집 메누리는 정시니 판테 강 머허멍 사람신지 모르쿠다게. 경허민 안되마 썸.”(경수네 가시엄마는 옛날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정신이 아득한 게 아파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는 정신이 다른 곳에 가서 뭐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가시어멍’은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시어멍’은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하는 호칭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가시아방’과 마찬가지로, 젊은층에게는 낯선 친족어휘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가시어멍’이라는 호칭보다는 ‘장모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친부모님처럼 ‘어마님’으로 호칭하거나 지칭하고 있다.

‘다슴어멍’에서 ‘다슴’은 ‘대를 잇는’, 또는 ‘데리고 들어 온’의 뜻이다(濟州道 1995:120). 따라서 ‘다슴어멍’은 중앙어의 ‘의붓어미(의붓엄마)’와 의미가 같다.

2.2.2.3. 어마니

‘어마니’는 중앙어 ‘어머니’에 대응된다. 아울러 근대국어 ‘어마니’와 대응된다. ‘어마니’는 ‘어마님’에서 말음 ‘ㄱ’이 탈락한 어형인데, 제주도 방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평칭의 호칭으로 존칭형인 ‘어마님’보다 사용 빈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 ‘어마니’는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아마도 ‘어멍’에 밀려나 세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2.2.2.4. 어마님

‘어마님’은 중앙어의 ‘어머님’에 대응된다. ‘어마님’에서 ‘어머님’으로 변하기 이전 단계의 어형이다. 중세국어에서도 ‘어마님’으로 나타나므로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국어 ‘어마님’은 ‘母’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어마’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으로(조항범 1996:86) 그 본래의 기능은 호칭이다. 중세국어의 ‘어마님’은 호칭과 아울러 지칭의 기능도 보였다. 이는 현대국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어마님’은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 제보자는 “어멍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멍은 어마님이라고 노평 부르지. 경헌디 요새 애들은 경 안허지.”(어멍은 어마님이라고 높여서 부르지. 그런데 요새 애들은 잘 쓰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나이든 세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친족어휘로 파악된다. 그런데 나이든 세대에서도 격식을 차리는 환경에서나 주로 지칭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어마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11) 호로는 질을 가담 짐장일 만나수다. 짐장이가 날 보고 “어마님 건강햐시냐?” 고릅디다. 경허난 고개만 꼬덕꼬덕 헤수다.(하루는 길을 가다 점쟁이를 만났는데, “어머님 건강하시지?” 라고 묻길래 고개만 꼬덕꼬덕 했습니다.)

제주도 방언의 [母]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지칭	호칭
평칭	어멤 어멍 어마니	어멤 어멍 어마니
존칭	어마님	어마님

[표 4]

2.3. [祖父·祖母] 관련 친족 어휘

2.3.1. [祖父] 관련 친족 어휘

제주도 방언의 [祖父] 관련 친족어휘에는 ‘하르비, 하르방, 하르바지, 하르바님’ 등이 있다.

2.3.1.1. 하르비

‘하르비’는 중앙어의 ‘할아버’에 대응된다. 중앙어 ‘할아버’와 어형이 유사하며 또 현재 비칭으로 쓰이는 것도 유사하다. 곧 ‘하르비’는 ‘하르방’에 대한 낮춤말이라 볼 수 있다. ‘하르비’는 비칭이어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왕의 조사 자료집(濟州道 1995:583)에서나 확인되고 있다.

2.3.1.2. 하르방

‘하르방’에 대한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세국어 평칭의 호칭어 ‘한아바’에서¹⁶⁾ 출발하는 ‘할바(예. 할바마마)’가 그 대응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할바’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곧 중앙어에서는 [祖父]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가 사라진 것인데,

16) ‘한아바’의 중세국어 용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東言考略 13>에서 이것이 확인된다.

이것이 제주도 방언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하르방’은 ‘하르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중세국어의 ‘아바’에 대한 ‘아방’, ‘어마’에 대한 ‘어망>어명¹⁷⁾’, ‘할마’에 대한 ‘할망’과 형태상 같은 계열어이다. 중세국어 ‘한아바’가 평칭의 호칭어였으므로 ‘하르방’도 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하르방’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실제 ‘하르방’은 평칭의 호칭어이지만 지칭어로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 어찌 보면 [祖父]에 대한 대표적인 친족어휘라고 볼 수 있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 제보자를 통해 ‘하르방’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제주도에서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니까?”라는 질문에, “아, 여기선 다 하르방이라 부르주게.”(아, 여기선 다 하르방이라고 부른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 오서용 제보자께서도 직접 하르방이라고 부르십니까?”라고 묻자, “아, 나도 우리 하르방신디 하르방 하르방 해신디, 이젠 경 안하고 나이께나 이시난 하르바님이라고 부르주게.”(아, 나도 우리 하르방한테 하르방, 하르방 했는데, 이젠 그렇게 안하고 연세가 있으시니깐 하르바님이라고 부른다.)와 같이 진술했다.

다음 (12)ㄱ의 ‘하르방’은 호칭으로, (12)ㄴ의 ‘하르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2) ㄱ. “하르방! 무사 정실 청호연 존 산털 안보곡 와수가?”(할아버지! 왜 지관 청해서 좋은 밋자리 안 보고 왔습니까?)

ㄴ. “하르방이 구녕치기¹⁸⁾만 허난 동네 사람들이 흥본뎡 헤라. 게난 하르방한테 경허지 말랭 ㄴ르라게? 아 나가 어명 ㄴ릅니까? 게민 마당질¹⁹⁾이라도 허랭 ㄴ르라게?”(할아버지가 구녕치기만 하니깐 동네 사람들이 흥본다고 하더라. 그러니깐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아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마당질이라도 하라고 말해라?)

‘하르방’은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활발히 쓰인다. ‘할아버지’ 정도의 나

17) ‘어마’에 대한 ‘어망’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3.1.1. 참고.

18) 구멍에 돈을 던져 거기에 들어간 것을 따먹기로 해서 돈을 걸어 하는 놀이. ‘고냥치기, 고망치기, 구녕치기’라고도 함.

19) ‘마당에서 하는 일’이란 뜻인데, 주로 콩이나 보리, 조를 수확해서 마당이나. 넓은 곳에서 도리깨나 방망이 따위로 때리면서 낱알을 떨어내는 일.

이든 남자를 ‘하르방’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돌하르방’, ‘뿔쟁이(구두쇠) 하르방’²⁰⁾, ‘더럭(구두쇠) 하르방’ 등에서의 ‘하르방’도 그와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한편, ‘하르방’이 [祖母] 쪽의 ‘할망’과 같이 비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²¹⁾ 하지만 기왕의 자료집에서 비칭의 용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내의 조부님을 가리키는 어휘에 ‘가시하르방’이 있다. ‘가시’는 ‘갓’에 속격의 ‘이’가 결합된 ‘가시’가 ‘가식’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가시하르방’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없다. ‘가시하르방’ 대신 ‘외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선호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하르방’이라는 호칭어보다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어에 더 익숙하다. 세대 간에 친족어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이 강화되고, 매스컴이 발달함에 따라 중앙어인 ‘할아버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3.1.3. 하르바지

‘하르바지’는 중앙어 ‘할아버지’에 대응된다. 중앙어 ‘할아버지’가 평칭의 호칭어 및 지칭어로 활발히 쓰이고 있으나 제주도 방언의 ‘하르바지’는 그 세력이 미약하다. 실제 잘 쓰이지 않으며, 이전 조사 자료집에서나 확인된다.

다음은 ‘하르바지’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13) “하르바지 어디 가시냐? 꼴랭이 잡으러 가수다. 계민 하르바지 오민 즈낙 머글 때 늬삐짐치 상에 올리라. 아라수다.”(할아버지 어디 가셨니? 메추라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오셔서 저녁 드실 때 무김치 상에 올려라. 알았어요)

2.3.1.4. 하르바님

‘하르바님’은 중앙어 ‘할아버님’에 대응된다. ‘하르바님’은 평칭의 호칭어 ‘하르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이다. 존칭형으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20) ‘하르방’은 제주도 전설이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별칭으로도 쓰이고 있다.

21) 최재석(1979)에서는 ‘하르방’과 ‘할망’이 비칭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때와 장소를 구분해 호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하르바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4) 우리 하르바님이 옛날부터 어가만 나민 양애떡²²⁾을 자주 만드난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텡 모 영가치 해주게. 경허민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고 아이들이 하영 좋아 허주게.(우리 할아버님이 옛날부터 틈만 나면 양애떡을 자주 만드니깐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같이 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랑 나누어 먹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다.)

그런데 ‘하르바님’은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제주의 일부 지역에 미미하게 남아 있다. 한림면 동명리에 사는 변중립(63세) 제보자에 따르면, “하르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옛날엔 하르바님이라고 해신디 지금은 어서.”(옛날에는 하르바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처럼 진술할 정도이다.

‘하르바님’은 나이든 세대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평칭의 호칭어 ‘하르방’에 밀려 그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존대 표현 의식이 희박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祖父]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지 칭	호 칭
평 칭	하르비 하르방 하르바지	하르비 하르방 하르바지
존 칭	하르바님	하르바님

[표 5]

22) 밀 혹은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양하 잎이나 배추 잎 등에 붙인 다음 불에 직접 구워 익힌 다음 배추 잎이나 재 등을 떨어낸 떡. 주로 아이들 간식으로 많이 쓰임.

2.3.2. [祖母] 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祖母] 관련 친족어휘에는 ‘헬미, 할멤, 할망, 할마니, 할마님’ 등이 있다.

2.3.2.1. 헬미

‘헬미’는 중앙어 ‘할미’에 대응된다. ‘헬미’는 지금 잘 쓰이지 않는다. ‘헬미’가 중앙어 ‘할미’와 같이 평칭에서 비칭으로 의미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 제보자는 “할멤, 할망, 할마니, 할마님 이외에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이 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나 어렸을 땐 헬미라고도 해신디 지금은 어서.”(내가 어렸을 땐 헬미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2.3.2.2. 할멤

‘할멤’은 중앙어 ‘할멈’에 대응된다. ‘할멈’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할멤’인 것이다. ‘할멤’은 기왕의 출간된 제주도 사전이나 조사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아마도 ‘할망’에 밀려나 세력을 잃은 것이거나, 그 의미 가치가 하락하여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2.3.2.3. 할망

‘할망’에 대한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할마’에 대응된다. ‘할마’의 ‘할마’가 바로 그것이다. ‘할마’는 기원형 *한아마가 *한으마>*한마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이 ‘할마’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 ‘할망’이 아닌가 한다. ‘아바’에 대한 ‘아방’, ‘어마’에 대한 ‘어망(>어멍)’, ‘한아바’에 대한 ‘하르방’과 같은 형태상의 계열어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한아마의 *아마’는 [ㅁ]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여서 *한아마, 곧 ‘할마’ 또한 평칭의 호칭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 방언의 ‘할망’도 평칭으로서 호칭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할망’은 호칭 기능뿐 아니라 지칭 기능도 갖는다. 그리고 [祖母]에 대한 친족어휘로 아주 활발히 쓰이고 있다. 그 사용 빈도만 보면 [祖母]에 대한 대표적인 제주도 방언이라고 할 만하다.

‘할망’에 대해서 김창민(1992)는 2세대 위의 사람에게는 직계, 방계 그리고 성에 관계 없이 모든 켤당에 쓰이는 호칭어라 보고 있고, 최재석(1979)는 유교적 관점이나 반·상의 위치에서 쉽게 허용될 수 있는 호칭은 아니지만, ‘켤당’의 범위에서는 쓸 수 있는 호칭어와 지칭어로 간주하고 있다. 곧 ‘할망’이 [祖母]에 대한 지칭과 호칭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할망’은 친족어휘에서 벗어나 일반 어휘로도 쓰인다. ‘나이든 여자’를 그렇게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것이다. ‘할망’을 포함하는 어휘 중에는 ‘가시할망’, ‘다슴할망’ 등의 일반적인 친족어휘도 다수 있지만, ‘선문대 할망’, ‘외돌괴 할망’처럼, 제주도의 전설이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여 친근감을 주는 별칭도 있다.

다음 예문은 일반어휘로서 ‘할망’이 지칭으로 쓰인 용례이다.

- (15) “아이구, 그 광수네 할망 무사 경 말을 하영 ㄹ람수가? 아니 발갈랭 와서민 발만 갈민 될꺼 아니? 너무 말만 ㄹ르난 밍상이우다게? 아, 그 광수네 할망 안 그래도 그 할망 밥 하영 먹는 할망이랭 소문나서라?”(아이구, 그 광수네 할머니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 발갈래 왔으면 발만 갈면 되잖아요? 너무 말만 하니깐 밍상이더라고요. 아, 그 광수네 할머니? 안 그래도 그 할머니 밥 많이 먹는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더라?)

위의 문장은 밥 많이 먹는 할망을 홍보는 내용이다. 여기에 ‘할망’이 쓰인 것이다. ‘할망’을 무시하는 문맥 속에 이것이 쓰였다는 점에서 평칭보다는 비칭에 가깝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로 보면 ‘할망’이 본래는 평칭이었지만 일반 어휘로 확대되어 쓰일 때에는 의미 가치가 하락하여 비칭에 가깝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한편 ‘할망’은 민속이라는 특수 사회에서도 쓰인다. ‘할망상(갓난 아기가 태어난 3일

23) 김동윤(2002)는 ‘할망’이 비칭으로 쓰인다고 보았다.

예) “동네 사람들이 날 숭보암서라. 새로 온 민기네 식모는 밥 하영 먹는 제주도 할망이엔 소문나서라.”(동네 사람들이 날 홍보더라. 새로 이사 온 민기네 식모는 밥 많이 먹는 제주도 할망이라고 소문났더라.)

째 되는 날 아침에 삼승 할망에게 드리는 상), ‘할망당(제주 무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부귀, 건강, 출세 따위의 사람살이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곳으로, 일정한 날 짜에 그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거나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이 제사 터를 말함.)’, ‘할망날(제주 무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할망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지역에 따라 삼일이나 칠일 또는 팔일이 되는 날을 가리킴.)’ 등에 쓰인 ‘할망’이 그와 같은 것이다(송상조 2007:707). ‘할망’이 친족어휘에서 일반 어휘를 거쳐 민속이라는 특수사회에서까지 쓰인 것만 보아도 ‘할망’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2.3.2.4. 할마니

‘할마니’는 중앙어 ‘할머니’에 대응된다. ‘할머니’의 이전 단계 어형이 ‘할마니’인 것이다. ‘할마니’는 존칭형 ‘할마님’에서 말음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중앙어에서는 문헌상 19세기에²⁴⁾ 보이고 있다. 이는 ‘아바님’이 ‘아바니’로, ‘어마님’이 ‘어마니’로 변한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할마니’는 존칭형에서 변형된 것이지만 평칭의 자격을 가지며 호칭 기능을 보인다. 아울러 지칭의 기능도 갖는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 ‘할마니’는 친족어휘로서의 기능이 약하다. 오히려 ‘나이든 여자’라는 일반 어휘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할마니’는 무속이라는 특수 사회에서 ‘무당이 섬기는 여신’이라는 특수한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 ‘할마니’의 쓰임이 다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할마니’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16) “할마니 점쟁이신디 츠자 간? 오늘 즈녁에 간뎡 해라마는 벌써 나강 어서. 무싱거엿겄지도 안 흥곡? 계난 어떻흐민 줍네깁? 난들 아라지느냐? 점쟁이 흥는 마를 들어바야 알주.” (할머니 점쟁이한테 찾아 갔니? 오늘 저녁에 간다고 했는데 벌써 나가고 없다. 뭐라고 말하지도 앓고?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들 알겠느냐? 점쟁이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알지.)

2.3.2.5. 할마님

24) 할마니 祖母, 〈國漢會語 p.707〉.

‘할마님’은 중앙어 ‘할머님’에 대응된다. ‘할머님’이 ‘할마님’의 모음 변화형이므로 ‘할마님’은 ‘할머님’의 이전 단계 어형이 된다. ‘할마님’은 ‘*한아마님’으로 소급한다. ‘*한아마님’은 [祖母]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한아마’에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이며, ‘*한아마님’ > ‘*한마님’ 단계를 거쳐 ‘할마님’이 된 것이다(조항범 1996:145). ‘할마님’은 이미 16세기 문헌(小學諺解 6:26)에서 확인된다. ‘할마님’은 평칭의 호칭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호칭의 기능을 갖는다. 제주도 방언에서도 주로 호칭의 기능으로 쓰인다.

다음은 ‘할마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17) “할마님 오민 죽은어멍 왔다 갔뎡 그르라이. 경허고 정시니 아득허난 몸놀림 허지 말렷 흐라.”
(할머님 오시면 작은엄마 왔다 갔다고 말해라. 그리고 정신이 아득하시니깐 몸을 움직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라.)

그런데 ‘할마님’은 [祖母] 관련 친족어휘 중 유일한 존칭형이지만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 미미하게 남아 있다(한림면 동명리에서는 나이든 세대에 따라 존칭형인 ‘할마님’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쓰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 제보자는, ‘할망’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옛날엔 할마님이라고 해신디 지금은 어서.”(옛날에는 할마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와 같이 진술할 정도이다.²⁵⁾ 앞에서 언급한 ‘하르방’의 경우처럼 세대가 바뀔 때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존대 의식이 약화되어 존대 표현이 쇠퇴하면서 존칭형 ‘할마님’도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祖母]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지칭	호칭
평칭	헬미	헬미

25) 본고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림면 동명리의 나이든 세대에서는 ‘할마님’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조사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존칭	할멈	할멈
	할망 할마니	할망 할마니
	할마님	할마님

[표 6]

2.4.1. [伯叔父] 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伯叔父] 관련 친족어휘는 ‘아지방, 아지바님, 큰아방/죽은아방, 큰아바지/죽은아바지, 큰아바님/죽은아바님, 삼촌’ 등이 있다.

2.4.1.1. 아지방

‘아지방’²⁶⁾에 대응되는 중앙어는 없다. ‘아지방’은 ‘아자바>아즈바>아즈바>아지바’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아지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지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이와 같은 음절 말의 ‘ㅇ’ 첨가 현상은 ‘하르방, 할망, 아방, 어멍, 아지방, 오라방’ 등에서도 확인된다.

제주도 방언의 ‘아지방’은 본래 [伯叔父]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아지방’은 이웃집 ‘아저씨’나 남자 어른을 공대하여 부를 때 쓰이고 있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 제보자를 통해 ‘아지방’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백숙부]를 ‘아지방’이라고도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 “옛날엔 아지방 아지방 경 혜신디 요즘엔 경 안허고 큰아방 큰아방 경 부르주게. 경헌디 어떤 사름들은 아방 성님헌테 아지방 아지방 허는 사름들도 이서.”(옛날엔 아지방 아지방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엔 그

26) ‘아지방’은 ① 주로, 여자가 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 ② 여자가 동기 이외의 손아래의 남자를 부르는 말. ③ 여자가 남편의 동생을 부르는 말. ④ 남자가 나이가 아래 속항 뻘을 부르는 말로 ‘아주방’이라고도 한다.

렇게 안하고 큰아방, 큰아방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편 형님한테 아지방, 아지방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나이든 세대에 따라 ‘아지방’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지방’의 호칭으로서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사전(송상조 2007)이나 기왕의 자료집에서 드물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다음 (18)ㄱ의 ‘아지방’은 호칭으로, (18)ㄴ의 ‘아지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8) ㄱ. “아지방마씨! 지옥이어명 잘 이수가? 경 안해도 아팡 병원에 있텨 들어신디 못 가바수다.”

(아저씨! 지옥이어마 잘 있나요? 안 그래도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못 가 봤습니다.)

ㄴ. “아지방 잘 이수가? 괴영저영 잘 이수다. 무사 요샌 옷뜨르에 안완수가? 경 안해도 아지방 잘 이신지 궁금훔텨 훑데당.(아저씨 잘 있습니까? 그럭저럭 잘 있습니다. 왜 요즘에는 윗마을(중산간마을²⁷))에 안 오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줌마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위처럼 ‘아지방’은 여성이 이웃집 아저씨나 아저씨와 같은 향렬의 남성에게 쓰는 호칭어이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게만 쓸 수 있다. 화자보다 아랫사람이면 ‘아지방’으로, 조금 윗사람이면 ‘아지방 마씨’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지방 마씨’는 나이든 세대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다. ‘아지방’이 [伯叔父]로서의 세력을 잃고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기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2.4.1.2. 아지바님

‘아지바님’²⁸)은 중세국어의 ‘아자바님’에 대응된다. 중앙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바님’이 ‘아즈바님>아즈바님>아주바님’을 거쳐 ‘아주버님’으로 남아 있는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바님’이 ‘아즈바님>아즈바님’을 거쳐 ‘아지바님’으로 남아 있다.

27) 김창민(1992)는 제주도의 촌락 구분을 ‘산간 마을, 중산간 마을, 해촌 마을’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촌락구조를 범주화한 것으로, ‘켄당’을 구분 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28) 제주도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주바님, 아주방’으로 나타난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ㅈ’아래의 ‘ㄱ’이 ‘ㄴ’로 변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중양어 중세국어 ‘아자바님’은 ‘백숙부’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아자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이다. 평칭의 호칭어를 포함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은 호칭이지만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²⁹⁾ 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의 ‘아지바님’도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아지바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9) “광수네 아지바님 어디 가수가? 무사 경험신디 ㄹ라봅서? 광수네 아지바님 가시할망이 잘 안땡흐는 점쟁이신디 강 드러보젠 험수다.”(광수네 아저씨 어디 가셨나요? 왜 그러시는지 말해 보세요. 광수네 아저씨 처할머니가 잘 안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대국어 중양어 ‘아주버님’은 그 본래의 의미인 [伯叔父]의 의미를 잃고 지금은 [媿叔]의 의미만 갖고 있다.³⁰⁾ 제주도 방언의 ‘아지바님’도 그 본래의 의미인 [伯叔父]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媿叔]의 의미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반적인 의미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아지방’을 높여서 부를 때나, 혹은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 친척을(‘媿叔’의 의미가 포함된 친척) ‘아지바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림면, 안덕면, 조천면 지역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나이든 세대는 아직도 ‘아지바님’을 쓰고 있으나 격식을 차리는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제약이 있다고 한다.

성산면 성읍리 민속 마을 내에 사는 조운수(61세) 제보자는 “[伯叔父]를 이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우리 어명은 옛날에 아지바님이라고 해신디, 요즘엔 경 안허지. 특히나 여긴 민속마을이고 젊은 사람들이 사난 거의 못 들어서.”(우리 어명은 옛날에 아지바님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특히나 이곳은 민속 마을이

29) 중세국어 ‘아자바님’의 형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趙恒範(1996:216) 참조.

30) 趙恒範(1996:220-226)에 따르면 ‘아자바님(아즈바님)아즈바님’은 15세기 이래 19세기까지 (가) ‘백숙부’, (나) ‘백부’, (다) ‘숙부’, (라) ‘외숙부’, (마) ‘(삼촌 관계 이외의) 부모 항렬의 남자’, (바) ‘남편 항렬의 남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에 (가), (나), (다), (라)의 의미를 잃고 (마), (바)의 의미로 축소되고, 이어서 바로 (마)의 의미를 잃고 (바)의 의미로만 축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바)의 의미도 ‘남편 항렬의 형’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거의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제보자의 어머니 세대에서나 ‘아지바님’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면 [伯叔父]를 여기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는 “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큰아버지, 큰아방이라고도 ㄱ람신디 쪼끔 젊은 애덜은 그냥 삼촌, 삼촌허지.”(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큰아버지, 큰아방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젊은 애들은 그냥 삼촌, 삼촌이라고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로 보면 ‘아지바님’은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잊혀진 호칭어로 볼 수 있다.

2.4.1.3. 큰아방/죽은아방

‘큰아방/죽은아방’은 중앙어 ‘큰아빠/작은아빠’에 대응된다. ‘큰아방/죽은아방’은 평칭의 호칭어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며, 그 사용 빈도수도 매우 높다.

‘큰아방/죽은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큰아바/죽은아바’에 ‘ㅇ’이 첨입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어멍, 하르방, 할망, 오라방, 아지방, 아지방’ 등과 형태상 같은 계열어이다. ‘큰아방/죽은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바’와 관련된 어형이므로, 이 또한 ‘아바’와 같이 평칭의 호칭어로서 기능을 한다. 물론 지칭의 기능도 갖는다.

그런데, ‘큰아방/죽은아방’은 서열을 매겨서 호칭되거나 지칭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兄弟’들이 여럿일 때는 ‘큰아방, 셋아방, 말젯아방, 죽은아방’ 등으로 순서를 정해 부를 수 있다. 물론 아버지의 兄弟들을 ‘삼촌’으로 호칭할 때도 위의 순서는 변함 없이 지켜진다. 이는 ‘姑母’나 ‘姨母’, 혹은 화자와 삼촌 관계에 있는 모든 친족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20)ㄱ의 ‘큰아방’은 호칭으로, (20)ㄴ의 ‘죽은아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20) ㄱ. “큰아방 어제 선반네³¹⁾ 간 일은 잘 데수강? 옷뜨르 하르방이랑 가치 가신디 잘 안땡 그냥 와서.”(큰아빠 어제 선반네 간일은 잘 되었습니까? 윗동네 할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왔다.)

31) 서귀포시에 위치한 하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 ㄴ. “무사 잘 안데수가? 난들 아라지느냐? 그 사람이 니네 죽은아방이랑 드투와서 싫덴 혼난 그냥 완. 무사 드투와수가? 모르켜게 니네 죽은아방 속을 아라지느냐?”(왜 잘 안됐습니까? 내가 알겠느냐? 그 사람이 네 작은아빠랑 다투어서 싫다고 하니깐 그냥 왔다. 왜 다 투었습니까? 모르겠다. 네 작은아빠 속을 알 수가 있느냐?)

2.4.1.4. 큰아버지/죽은아버지

‘큰아버지/죽은아버지’는 중앙어 ‘큰아버지/작은아버지’에 대응된다. ‘큰아버지/죽은아버지’는 평칭의 호칭어이지만 지칭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 ‘큰아버지/죽은아버지’는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기왕의 자료집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큰아버지/죽은아버지’는 평칭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큰아방/죽은아방’에 밀려 그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2.4.1.5. 큰아버님/죽은아버님

‘큰아버님/죽은아버님’은 중앙어의 ‘큰아버님/작은아버님’에 대응된다. ‘큰아버님/죽은아버님’은 ‘큰아바/죽은아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 평칭의 호칭어에 ‘-님’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하르바님, 할마님, 아바님, 어마님’ 등과 형태 구조가 같다. ‘큰아버님/죽은아버님’은 존칭형 호칭어로서 지칭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 ‘큰아버님/죽은아버님’은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기왕의 자료집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지만, 나이든 세대에서도 격식을 차리는 환경을 제외하고는 잘 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 제보자는, “아버지의 형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 “우리 아방은 성님, 성님 허지만, 아, 우리야 큰아방, 큰아방 허주게. 그냥 ‘삼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헌디 요새 젊은 애들은 경 안헤여. 다 삼춘이라. 큰삼춘, 죽은삼춘 경허지.”(우리 아방은 성님, 성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들은 큰아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모두 삼춘이라고 부른다. 큰삼춘, 작은삼춘으로 부른다.)라고 대답했다.

다음 (21)ㄱ의 ‘큰아버님’은 지칭으로, (21)ㄴ의 ‘죽은아버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21) 가. “큰아바님 어디 가수강? 늑삐짐치 심당 소늘 다치난 아팡 병원 가신디? 케민무사 나 안불러수가? 즈캐가 어디 강 머허는지 알 도리가 이시냐?”(큰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무김치 심다가 손을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조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 나. “작은어마님! 작은아바님 옷뜨르 간 일은 어떻 해수가? 어제 즈낙부텅 걱정했지예? 모르켜, 그 사람이 먼저 전화해야 알거라.”(작은어머님! 작은아버님 옷마음에 간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걱정했지요? 모르겠다, 그 사람이 먼저 전화해야 알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큰아바님/작은아바님’보다는 ‘큰아방/작은아방’, ‘큰삼촌/작은삼촌’이라는 호칭을 더 선호한다. 이런 경향은 중년층의 세대들까지도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4.1.6. 삼촌

제주도 방언에서 ‘삼촌’³²⁾은 결혼하기 전 아버지의 형제들을 이르는 말이다. 화자를 중심으로 나이든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에서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삼촌’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으며, 그 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 호칭어 ‘삼촌’은 [伯父], [叔父]를 뜻하기도 하지만³³⁾, 근래에 들어서서는 ‘姑母’나 ‘姨母’, 그리고 ‘고모부, 이모부’에게도 편하게 쓰고 있다. 물론 외삼촌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다. 3촌 관계에 있는 모든 친족원은 물론이고 부모 항렬의 모든 친족원들에게 두루 쓰이고 있는 호칭어이다.

다음 문장에서 ‘삼촌’의 용법과 기능을 살펴보자.

32) 강정희(2005)는 ‘삼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주 방언은 친족관계에서 부모님의 친형제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항렬에 해당하는 친족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부모님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호칭, 지칭어이다. 또한, ‘삼촌’의 호칭어와 지칭어는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님의 남자 형제들에게는 ‘삼촌-외삼촌’을 구분하지 않고 당사자의 이름을 넣어 ‘○○삼촌’으로 호칭, 지칭한다. 한편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과는 달리 아버지 쪽으로의 친형제들에 대해서는 ‘큰/셋/작은 아버지’로 명시하여 부르거나 지칭한다.

33) 아버지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까지도 ‘삼촌’으로 호칭, 지칭된다.

(22) “삼춘 이수가? 아직부텨 즈캐가 무사 와시니? 아방 식게 때 지수그로 어떻 씨엌신지 아라보쩨 와수다³⁴). 괴영 니 아랑 허라게? 난들 아라지느냐?” (삼춘 계십니까? 아침부터 조카가 어떻게 왔느냐? 아방 제사 때 제수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삼춘’은 한 동네에 사는 나이든 세대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이웃에 사는 아줌마³⁵, 아저씨에게도³⁶ 사용되는 호칭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삼춘’의 지칭 기능을 살펴보자.

(23) “광수할망! 오늘 아적에 우리 멩멍이 못 봐수가? 오늘 아적엔 통 못 봐신디 무사? 수돗가에서 목욕 시켜신디 도망 강 어수다게? 계민 유민이네 삼춘한테 물어보라게.” (광수할망! 오늘 아침에 우리 멩멍이 못 보셨어요? 오늘 아침엔 통 못 봤는데 왜? 수돗가에서 목욕 시켰는데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면 유민이네 삼춘한테 물어봐라.)

김창민(1992)는 한 세대 위이면 ‘삼춘’으로, 한 세대 아래이면 ‘조캐’로 호칭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혈통이나 혼인관계를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두 ‘삼춘’과 ‘조캐’가 쓰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삼춘’은 일반적으로 평칭의 호칭어로 쓰인다. 하지만 발화 상황에 따라서는 청자를 고려하여 존칭형³⁷으로도 쓰이고 있다. ‘삼춘’은 제주도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친족어휘는 아니다. 여타 지역 방언에서도 비슷한 의미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삼춘’이 존칭으로 쓰인 예이다.

(24) “삼춘 즈냐 어떻해수강? ㄱ라봬서게. 괴영저영 먹었쥬. 계민 영실네 가시어멍 ㄱ라 왔당가렐 허

34) 진성기(2008).

35) 제주도 방언에서 ‘삼춘’은 여성에게도 쓰이고 있다.

36) 화자와 연배가 비슷한 아저씨에게는 ‘아지방’으로, 연배가 높은 아저씨에게는 ‘삼춘’으로 부르고 있다.

37) 여타 지역 방언에서는 ‘삼춘’이 평칭형이지만, 제주도 방언의 ‘삼춘’은 평칭형과 존칭형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

쿠다 양? 기여 즈께가 아랑 허라이. 경헌디 영실네 그 가시어멍 나이께³⁸⁾나 먹엉 보이는데 무사 경헛텐 흠데강? 아, 난들 아라지느냐?”(삼춘 저녁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저럭 먹었다. 그러면 영실네 장모님 왔다 가라고 할게요. 그래라 조카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영실네 장모님은 나이께나 먹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 난들 알겠느냐?)

한림면 동명리에 사는 변중립(66세) 제보자는 “여기선 ‘고모부’나 ‘이모부’를 부를 땐 어떻게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 “아, 나 어릴 때 우리 아방 어멍은 ‘고모부’, ‘이모부’ 경 부르기도 해신디, 요즘엔 경 안허여. 그냥 삼춘 삼춘 경 부르지.”(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방 어멍은 ‘고모부’, ‘이모부’라고도 불렀는데, 요즘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냥 삼춘, 삼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진술했다. 이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고모부’나 ‘이모부’를 호칭할 때도 ‘삼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삼춘’은 ‘큰삼춘/죽은삼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춘’이라는 호칭어에 접두 요소인 ‘큰-, 죽은-’이 결합하여 서열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큰삼춘/죽은삼춘’으로 구분하여 호칭하면 된다.

다음은 ‘삼춘’이 [姑母夫]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25) “삼춘 와수가? 무사 경 오랜만에 와수강? 광운인 잘 있지예? 경 안해도 즈께 뭐헛신지 물어바라마는 내가 잘 아라지느냐?”(삼춘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광운이는 잘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조카 뭐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내가 잘 알겠느냐?)

조천면 함덕리에 사는 김병석(79세) 제보자와 녹음을 마치고 동네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식당 여주인이 김병석 제보자를 보고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식당 여주인과 김병석 제보자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6) “삼춘 와수가? 오랜만에 와수다 양? 기여, 장산 잘 됩시냐? 괴영저영마시. 뭐 드실렸과? 즈께가 아랑 주라게.”(삼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 장사는 잘 되니? 그러저럭 됩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조카가 알아서 주면 된다.)

38) ‘어느 정도 든 나이’를 앞잡아 이르는 말.

한 동네에 사는 이웃과 나눈 대화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삼촌’은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보다 위의 사람이나, 이름을 부르기에 어색한 이웃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친족어휘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伯叔父]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지 칭	호 칭
평칭	아지방 큰아방/죽은아방 큰아버지/죽은아버지 삼촌	아지방 큰아방/죽은아방 큰아버지/죽은아버지 삼촌
존칭	아지바님 큰아바님/죽은아바님	아지바님 큰아바님/죽은아바님

[표 7]

2.4.2. [姑母] 관련 친족어휘

[姑母]는 친족 구성원 중 [父]와 동향렬이면서 조카인 화자와 3촌 관계에 있는 여성 친족원이다. 이는 남성으로서 삼촌 관계인 [伯叔父]와 동렬 관계에 놓이는 여성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친족제도 하에서 [母] 및 [祖母]와 함께 중심적 여성 친족원으로 묶일 수 있는 近親 범주에 속한다(조항범 1996:171).

제주도 방언의 [姑母] 관련 친족어휘는 ‘고모, 고모님, 아지방, 아지마님, 삼촌’ 등이 있다.

2.4.2.1. 고모

‘고모’는 중앙어 ‘고모’와 같은 의미이다. 중앙어에서는 화자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여자 同氣를 ‘姑母’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모’는 주로 호칭으로

쓰인다. 아울러 지칭의 기능으로도 넓게 쓰이고 있어서 ‘고모’는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모’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27) “난이야? 니네 고모 어디 가시냐? 우리 고모 병원간 아직 안 와신디 무사 경험수گا? 계민 고모 오민 선반내 승수네 왕 독새기 가져가렐 ㄱ르라. 아라수다.”(난이야? 네 고모 어디 가셨니? 우리 고모 병원 가셔서 아직 안 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고모 오시면 선반내 승수네 집에 와서 계란 가져가시라고 말씀 드려라. 알겠습니다.)

조천면 함덕리에 사는 김병석(79세) 제보자는, “제주도에서는 ‘고모’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아, 여기선 그냥 ‘고모’라고 허는디. 육지 사름들도 아마 고모렐 허지.”(여기선 그냥 고모라고 한다. 육지 사름들도 아마 고모라고 할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고모’를 이르는 다른 호칭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고모 말고 다른 건 어신디, 무사 고모 말고 또 다른 말도 이서?”(고모라는 호칭 외엔 다른 말은 없는데, 왜 고모 말고 다른 호칭이 또 있느냐?)처럼 대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중에서 [姑母] 관련 친족어휘로는 ‘고모’가 일반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2.4.2.2. 고모님

‘고모님’은 ‘고모’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 ‘고모님’은 주로 호칭으로 쓰이지만 지칭으로도 쓰인다.

다음은 ‘고모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28) “시준이야방 이수가? 시준이야방 어신디 무사 경험수گا? 우리 고모님이 좀 ㅼ젠 험수다. 집에 오민 경 ㄱ루쿠다.”(시준이아빠 있습니까? 시준이아빠 없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고모님이 좀 보자고 합니다. 집에 오면 말하겠습니다.)

‘고모님’은 주로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친족 여성에게 쓰

고 있다. 또한 나이든 세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4.2.3. 아지망

‘아지망’³⁹⁾은 중세국어 ‘아즈마’에 대응된다. ‘아지마’는 ‘*아자마>아즈마>아즈마>아지마’의 과정으로 상정된다. 제주도 방언의 ‘아지망’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으며, ‘아지마님’에 비해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아지망’은 평칭의 호칭어 ‘아지마’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음절말의 ‘ㅇ’ 첨가 현상은 ‘하르방, 할망, 아방, 어멍, 아지방, 오라방’에서도 확인된다.

‘아지망’은 중앙어 ‘아줌마’에 대응된다. 제주도 방언의 ‘아지망’은 본래 [姑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姑母]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적인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다음 문장은 ‘아지망’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29) “세빈이 아지망 이수가? 우리 어멍 어신디 무사 경험수가? 아, 그 효돈 할망 정시니 앓득흔게 아광 누웠덴. 게난 어멍 오민 조낙에 효돈 할망한테 가야된덴 ㄹ르라이, 나가 이따 다시 오켜. 경 ㄹ르민 되지예?”(세빈이 아줌마 있습니까? 우리 엄마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 효돈 할머니 정시니 아득한게 아파서 누웠단다. 그러니깐 엄마 오면 저녁에 효돈 할머니한테 가야 된다고 말해라. 내가 이따가 저녁에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하면 되지요?)

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3세) 제보자에게 ‘아지망’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다. “혹시 ‘아지망’이 아직도 [姑母]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 옛날에 우리 하르방, 할망은 경 썬텅 혜신디 요샌 경 안허주게. 젊은 애덜도 요샌 동네 여자들헌테나 ‘아지망, 아지망’ 허지 ‘고모’한테 경 안 허주게.”(아, 옛날에 우리 하르방, 할망은 그렇게 썬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한다. 젊은 애들도 요새는 동네 여자들에게나 ‘아지망, 아지망’ 하지 ‘고모’한테는 그렇게 안 부른다.)라고 대답했다.

이로 보아, ‘아지망’은 본래의 의미인 [姑母]로서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아지망’은 ①손아래 제수나 올케를 부르는 말. ②친척이 아닌 손아래의 다른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아주망이라고도 부른다.

2.4.2.4. 아지마님

‘아지마님’은 중앙어 중세국어 ‘아자마님’에 대응된다. 중앙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마님’이 ‘아즈마님>아즈마님>아주마님>아즈마님’을 거쳐 ‘아주머님’으로 남아 있는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마님’이 ‘아즈마님>아즈마님’을 거쳐 ‘아지마님’으로 남아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ㅈ’ 아래의 ‘ㅡ’가 ‘ㅣ’로 변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중세국어 ‘아자마님’은 [伯叔母]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아자마’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이다. 평칭의 호칭어를 포함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은 호칭이지만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⁴⁰⁾ 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의 ‘아지마님’도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아지마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30) “광원네 아지마님 이수강? 무사 경험수가? 모슬포 승환이네 잔칫나렌 아들이랑 가치갈 것파? 가이 즈낙에 오른 물어보쿠다.”(광원이네 아지마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모슬포 승환이네 잔칫날 아들이랑 같이 가십니까? 그 애가 저녁에 오면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어 현대국어 ‘아주머님’은 그 본래의 의미인 [伯叔母]의 의미를 잃고 지금 [叔母]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 방언의 ‘아지마님’도 본래의 의미인 [伯叔母]의 의미를 잃고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아지마님(아주머님)’의 의미로 남아 있다. ‘아지망’을 높여서 부를 때나,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일반적인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존칭형 ‘아지마님’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지 제보자에게 질문해 보았다. 조천면 함덕리에 사는 김병석(79세) 제보자는 “[姑母]를 이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옛날에 우리 어마님은 ○○집 아지마님 아지마님 해신디 요즘엔 잘 못 들어바서. 요새 젊은 애덜도 아마 경 안허고 그냥 삼춘 삼춘 허주게.”(옛날에 우리 어마님은 ○○집 아주마님 아주마님 했는데, 요즘엔 잘 못 들어봤다. 요새 젊은 애들도 아마 그렇게 안하고 그냥 삼춘 삼춘이라고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 지역에서도 앞의 [伯叔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0) 중세국어 ‘아자마님’의 형태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趙恒範(1996:186) 참조.

가지로, 나이든 세대에서나 ‘아지마님’을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그러면 [姑母]를 여기선 어떻게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아, 우리 아바님 세대나 어마님들은 고모님 고모님이라고 ㄱ랍신디, 요새 젊은 애덜은 그냥 고모 고모 허고, 그냥 삼춘 삼춘 경도 부르주게. 아, 다른 쁘당들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아, 우리 아바님이나 어마님들은 고모님 고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냥 고모 고모 하기도 하고, 그냥 삼춘 삼춘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아, 다른 친척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나?)라고 대답했다. 이로 보아 ‘아지마님’은 나이든 세대에 따라 그 사용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2.5. 삼춘

‘삼춘’은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로서 ‘고모’를 지시하기도 한다. ‘삼춘’은 본래 [姑母]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춘’은 성가와 외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구분되어 호칭되기도 한다. ‘이모’나 ‘외숙모’는 ‘외펜예펜삼춘⁴¹⁾’으로, ‘이모부’나 ‘외숙부’는 ‘외펜스나히삼춘⁴²⁾’으로 부른다. 이것은 성가의 삼춘과 외가의 삼춘을 적절히 구분하여 호칭하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보인다.

‘삼춘’은 [姑母]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을 호칭할 때도 적용된다. 부모 항렬의 나이든 세대나 한 동네에 사는 어르신, 혹은 명호칭을 하기 어색한 이웃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다. 여타 지역 방언에서 ‘삼춘’은 남성 호칭어에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삼춘’이 여성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姑母] 관련 친족 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41) ‘외펜예펜삼춘’에서 ‘예펜’은 ‘여성’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42) ‘외펜스나히삼춘’에서 ‘스나히’는 ‘남성’을 뜻한다.

	지 칭	호 칭
평 칭	고모 아지망 삼촌	고모 아지망 삼촌
존 칭	고모님 아지마님	고모님 아지마님

[표 8]

2.5. [兄·弟] 관련 친족어휘

2.5.1. [兄] 관련 친족어휘

[兄]은 본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同性의 同氣를 지시하는 단어이다. [兄]은 화자와 1촌간 동성의 윗사람으로 친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간의 친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조항범 1996:248).

제주도 방언의 [兄] 관련 친족어휘에는 ‘성, 성님, 언니’가 있다.

2.5.1.1 성

‘성’은 중앙어 [兄]에 대응된다. ‘성’은 ‘형>성>성’의 과정을 거친 형태이다. ‘성’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다. ‘성’은 同氣이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친족원 사이에서 같은 行렬(行列)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나이가 비슷한 친구 사이에 상대방을 공대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는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다음은 ‘성’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31) “어명! 설이 독자봉⁴³에 올라간뎡 혜신디 진짜 가수가? 아침 일찍 나가시난 지금쯤 독자봉에 도착했을 거라. 경헌디 너도 따라가지 무사 안 가시니? 어후, 난 그렇게 노픈 덴 못 가우다게.”

(엄마! 형이 독자봉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진짜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갔으니깐 지금쯤 독자봉에 도착했을 거다. 그런데 너도 따라가지 왜 안 갔니? 어후, 난 그렇게 높은 덴 못 갑니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 제보자는, “여기선 ‘兄’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 “아, 우리 나이 때야 성, 성님 해신디 요새 젊은 사름들은 그냥 육지 말로 형, 형 경 부르는 거 같어.”(아, 우리 나이 때야 성, 성님 했지만 요새 젊은 사름들은 그냥 육지 말로 형, 형 그렇게 부르는 거 같다.)라고 진술했다.

요즘 제주도에서는 나이든 세대에서 ‘성, 성님’을 쓰고 있고, 표준어 강화 교육에 힘입은 젊은 세대들은 ‘성’ 대신 대체로 ‘형’이라는 호칭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양어에서 ‘형제’는 서열에 따라 호칭된다. 이것은 제주도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형제’를 호칭할 때는 ‘큰놈, 셋놈, 말젧놈, 죽은놈’의 순서대로 부른다. 하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서열을 정해 놓고 부를 때는 ‘큰성, 셋성⁴⁴⁾, 말젧성, 죽은성’으로 호칭하는 것이다. ‘큰성’은 맏형을, ‘셋성’은 둘째 성을, ‘말젧성’은 셋째 성을, ‘죽은성’은 막내를 나타내기도 하나, 문맥에 따라 ‘둘째’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특한 서수 방식은 친족원 전체에 적용되어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 전반에서 확인된다.

2.5.1.2. 성님

‘성님’은 중양어 ‘형님’에 대응된다. ‘성님’은 평칭의 ‘성’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 ‘성님’은 호칭 기능과 더불어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다음은 ‘성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3)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북서쪽에 있는 산. 봉수대가 있었다.

44) 강정희(2005)는 ‘셋’을 서열상 ‘둘째’의 의미로 전이된다고 보고 있다. 이 ‘셋’은 형제, 자매, 친족 관계에서 세 사람의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서열을 명명할 때에 한해서 이 ‘둘째’라는 의미로 작용한다. 따라서 ‘첫째와 셋째 사이에 끼어 있는 형제, 자매, 친족 등’을 일컫는다.

예) 셋아방, 셋성님, 셋딸, 셋아들.

(32) “아지망 어디 감수강? 호근리 경대네 밭 갈랭 감수다. 성님 어수가 무사 혼자 감수강? 성식이 아방 몸굼으랭 가수다. 무사 세백부텅 몸굼으랭 가수강? 나도 모르쿠다게 아마도 번쩍⁴⁵⁾ 거 짓말일꺼우다?”(형수님 어디 가세요? 호근리 경대네 밭 갈러 갑니다. 성님 없어요? 왜 혼자 가세요? 성식이 아빠 목욕하러 갔어요. 왜 새벽부터 목욕하러 갔습니까? 내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확실한 거짓말일겁니다.)

‘성님’은 주로 나이든 세대에서 쓰이고 있다.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윗사람을 부를 때, 혹은 동서 간에 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바로 ‘성님’이다. 그런데 이 ‘성님’은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성님’은 중앙어의 ‘형님’에 밀려 그 기능과 용법이 차츰 희박해져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5.1.3. 언니

‘언니’는 ‘중앙어’의 ‘언니’와 지시의 의미가 같다. ‘언니’의 기능은 호칭이지만 지칭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언니’는 ‘여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언니’는 [兄] 관련 친족어휘 중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친족어휘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 제보자는, “여기선 ‘언니’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경헌디 언니라는 말은 원래 지춇말⁴⁶⁾이 아니라 아, 육지 사람들이 씨단 말이지. 경헌디 요새 젊은 애덜은 언니 언니 경 부루주게.”(그런데 언니라는 말은 원래 제춇말이 아니라 아, 육지 사람들이 쓰던 말이다.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언니 언니 그렇게 부른다.)라고 진술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언니’는 중앙어의 영향으로 쓰이기 시작한 어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 또, 앞의 ‘삼춘’의 경우처럼 비교적 늦게 등장한 친족어휘에 속한다.

다음은 ‘언니’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5) 부정의 뜻을 지닌 말 앞에서 강조의 뜻을 나타내어, 전혀 의심할 나위 없는 확실한 상태. ‘틀림 없이’ 따위의 뜻. 예) 번쩍 거짓말(확실한 거짓말)

46) 제주도의 말, 제주도 방언을 일컫는다.

(33) “영심이네 언니 시집간뎡 홉데다. 기냐? 침 들어보난 잘 모르켜게 무사 시집간뎡 흐더냐? 듣긴 경 들어신디 예, 잘 모르쿠다게.”(영심이네 언니 시집간다고 합니다. 그래?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다 왜? 시집간다고 하더냐? 듣긴 그렇게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 방언에서 ‘언니’의 용례는 기왕의 자료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언니’가 구어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흔적은 찾기가 쉽지 않다.

‘언니’는 호칭하는 순서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데, [兄]의 서수 순서와 같다. 즉, ‘큰, 셋, 말쑤, 죽은 …’의 순서에 따라 ‘큰언니, 셋언니, 말쑤언니, 죽은언니’로 부르면 된다.

‘언니’는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널리 쓰인다. 제주도 전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언니’의 용법과 같은 양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언급한 ‘성’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지칭	호칭
평 칭	성	성
존 칭	성님 언니	성님 언니

[표 9]

2.5.2. [弟] 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弟] 관련 친족어휘에는 ‘아시, 아시님, 동생’이 있다.

2.5.2.1. 아시

‘아시’는 중앙어 ‘아우’에 대응된다. 제주도 방언에서 ‘아시’는 화자를 중심으로 손아래 동기에게 쓰이는 지칭어이다. ‘아시’는 동성끼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兄弟] 간이나 [姉妹]끼리 쓸 수 있는 것이다. ‘아시’는 ‘아스>아스>아스>아시’로 형태가 변화한 어형이다. ‘아시’는 호칭과 지칭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아시’는 나이든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중앙어와 같은 ‘동생’을 쓰고 있다. 이는 아랫사람을 대접해서 부르는 예법이 퇴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 (34)ㄱ의 ‘아시’는 호칭으로 (34)ㄴ의 ‘아시’는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4) ㄱ. “아시야! 오늘 어멍 놀 산털 보고 와시냐? 아고 깜빡 헤수다게. 나가 오늘 바빵 그 산털 못봐수다. 내일 가치 갑서게.”(아우야! 오늘 엄마 누울 밧자리 보고 왔니? 아고 깜빡 했네. 내가 오늘 바빠서 그 밧자리 못 보고 왔네요. 내일 같이 가지요?)

ㄴ. “영진네 아시는 공부도 일등이렝 해라? 무사 년 공부도 못험시니? 아고 어멍! 무사 영진이 아시랑 나랑 비교 험수가? 경허난 더 못하는 거라마썸 비교하지 맏서게.”(영진네 아우는 공부도 일등이라고 하더라. 너는 왜 공부도 못하는 거냐? 아고 엄마! 왜 영진이 아우랑 나랑 비교하세요? 그러니깐 더 못하는 거라구요. 비교하지 마세요.)

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6세) 제보자는, “여기선 동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아,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아시라고 허는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육지 말로 동생 동생 허주게.”(아,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아시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육지 말로 동생 동생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것으로 보아, 제주도 방언에서 [弟] 관련 친족어휘로는 ‘아시’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아시’는 동기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화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경우 촌수와 관계없이 ‘아시’로 호칭된다. 또한 ‘아시’는 친동생을 지시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시동생에게도 적용된다. 남편의 동생들 중에서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친동생처럼 ‘아시’로 호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의 ‘통혼망’ 구조와 관계가 있다. 시댁 식구들과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고, 결혼 후에도 마치 친정 식구들처럼 친근감이 형성되어 ‘도련님, 아가씨’

라는 호칭 대신 ‘○○야’ 라고 부른다. 이처럼 명호칭을 하는 것은 시동생들을 마치 친 동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앙어와 다른 현상이다.

2.5.2.2. 아시님

‘아시님’은 중앙어 ‘아우님’에 대응된다. ‘아시님’은 화자를 중심으로 손아래 동기를 부르는 호칭이다. ‘아시님’은 동성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인데, 여자 동기간 혹은 남자 동기간에 부를 수 있다.

‘아시님’은 ‘아시’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 나이든 동생에게 이름을 부르기가 곤란한 경우나, 혹은 같은 향렬의 친족원이라도 연배가 비슷한 경우라면 ‘아시님’으로 부를 수 있다. 또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도 손아래 동생이지만 나이가 지극한 동생에게는 ‘아시님’으로 호칭하는 것이다.

다음은 ‘아시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5) “아구 고모님 외수강. 무사 아시님은 가치 안외수가? 가이가 요즘 바빠난 다음에 온덴헤라.(아구, 고모님 오셨어요. 왜 아우님은 같이 안 왔습니까? 개가 요즘 바빠서 다음에 온다고 하더라.)

2.5.2.3. 동생

‘동생’은 중앙어의 ‘동생’과 지시의미가 같다. ‘동생’은 평칭으로서 호칭과 지칭 기능을 갖고 있다. ‘동생’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사용 빈도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조천면 함덕리에 사는 김병석(79세) 제보자는, “여기선 ‘아시’ 말고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글쎄, 나 어릴 땐 아시령 부르기도 하고 동생이령도 해신디 요새 사름들은 그 육지 말로 동생 동생 경 부르주게.”(글쎄, 나 어릴 땐 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했는데 요새 사름들은 그 육지 말로 동생 동생 그렇게 부른다.)라고 진술할 정도이다.

그런데 ‘동생’은 기왕의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구어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시’와 ‘동생’을 구

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동생’은 중·장년층 세대에서 명호칭에⁴⁷⁾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호근리 동생’, ‘한림 동생’처럼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여타 지역 방언과 같은 양상이다.

다음은 ‘동생’이 일반 어휘로 쓰인 예이다.

(36) “동흥리 동생 내일 연수네 밭 갈랭 갈꺼마심? 갈꺼우다 경헌디 무사 나 혼자만 갈꺼파? 아니라, 선반네 병호어명이랑 갈꺼.”(동흥리 동생 내일 연수네 밭 갈러 가요? 갑니다만 그런데 왜 나 혼자만 갑니까? 아니다. 선반네 병호엄마랑 가죠.)

지금까지 언급한 [弟]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지칭	호칭
평 칭	아시 동생	아시 동생
존 칭	아시님	아시님

[표 10]

2.6. [同氣] 관련 친족어휘

2.6.1. [男子同氣] 관련 친족어휘

여자 동기가 남자 동기를 부르거나 이르는 친족어휘를 [男子同氣] 관련 친족어휘라고

47) ‘명호칭’은 지역이나 사는 곳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귀포 동생’, ‘제주시 동생’은 서귀포나 제주시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한다. 제주도 방언의 [男子同氣] 관련 친족어휘에는 ‘오래비, 오라방, 오라바니, 오라바님’이 있다.

2.6.1.1. 오래비

‘오래비’는 중앙어 ‘오라비’와 대응된다. 중세국어에서도 ‘오라비’였는데, 이는 접두사 ‘올-’과 명사 ‘아비’로 분석된다. ‘아비’는 원래 ‘父’의 뜻이나 여기서는 ‘아자비(앗- + 아비), 한아비, 훤아비’ 등에 이용된 ‘아비’와 같이 ‘남자’라는 의미를 띤다. 그렇다면 ‘오라비’는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놓일 수 있되 아버지보다는 어리고 미숙한 남자’ 정도로 해석된다(조항범 2009:583). 그와 같은 인물은 남자 형제 모두가 되는데, 실제 ‘오라비’는 남자 쪽 형제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어로 쓰였다. 물론 [男子同氣]에 포함되는 [男兄]이나 [男弟]도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라비’는 이들 [男兄弟], [男兄], [男弟]를 지시하는 평칭의 지칭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중세국어의 ‘오라비’는 여자가 자기의 남자 동기를 이르는 말이었다. 이러한 체계는 19세기까지 지속되다가 20세기에 의미상 변동이 생긴다. 즉, [男子同氣], [男兄], [男弟]의 의미를 모두 유지하지만, [男兄]의 의미로 쓰일 때는 평칭이 아니라 비칭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아비’의 의미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男弟]의 의미 기능이 매우 약해지면서 ‘오라비’는 [男弟]의 의미만을 지시하게 된다(조항범 2009:583).

중세국어의 ‘오라비’가 중앙어에 ‘남동생’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제주도 방언의 ‘오래비’도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남아 있다. ‘오래비’는 여자 동기가 손아래의 남자동기를 이르는 말이다. 손아래의 남자 동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 “내 오래비아.” 라고 한다. 중앙어의 ‘오라비’가 ‘남동생’을 지시하는 것이나 제주도 방언의 ‘오래비’가 [男弟]만을 의미하는 것은 모두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내에 사는 조윤수(61세) 제보자는 “여기선 ‘남동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여기선 오래비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름도 부르고 경허지. 무사 댕텐 경 안헌텐?”(여기선 오래비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한다.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안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여 ‘오래비’가 ‘남동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오래비’는 평칭으로서 지칭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중앙어의 ‘오라비’가 지칭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다음의 (37)의 ‘오래비’는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7) “지원아! 니 오래비⁴⁸⁾ 군대 가시냐? 아, 기원이 마썸? 저번에 군대 가수다. 기냐? 계민 너 심 심혀켜.”(지원아! 네 남동생 군대 갔냐? 아, 기원이요? 지난번에 군대 갔어요. 그렇구나 그럼 너 심심하겠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오래비’는 실제 잘 쓰이지 않고 있다. 나이든 세대를 중심으로 일상의 대화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내 남동생이야’, 혹은 ‘내 아시야’라고 소개하고 있다.

2.6.1.2. 오라방

‘오라방’은 중앙어 ‘남동생’에 대응된다. ‘오라방’의 기원형은 ‘*오라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곧 ‘하르방, 할방, 아방, 어멍’과 같은 형태론적 계열어가 된다.

중세국어의 ‘*오라바’⁴⁹⁾는 ‘父’의 호칭어 ‘아바’에 접두사 ‘올-[부]’이 결합된 어형이다. ‘父’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아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평칭의 호칭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오라바’는 여자 동기가 남자 동기 전체를 부르던 호칭어였다. 곧 [男兄弟]라는 총칭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男兄弟]에 포함되는 [男兄]과 [男弟] 의미도 갖고 있었다(조항범 1996:328). ‘*오라바’는 ‘올바>*오바>옵바’로 변하여 지금의 ‘오빠’로 남아 있다. 아울러 의미도 [男兄弟], [男兄], [男弟]에서 [男兄]만으로 축소되었다(조항범 1996:333).

중세국어의 ‘*오라바’가 중앙어에는 ‘오빠’로 남아 있지만, 제주도 방언의 ‘오라방’은

48) ‘오래비’들의 서수 방식은 다른 친족어휘 서수 방식과 같다.(오라방, 누님, 아시 등) 따라서 ‘큰오래비, 셋오래비, 말셋오래비, 죽은오래비’ 등으로 쓰인다.

49) ‘*오라바’는 문증되지 않으나 18세기에 ‘올아바’(華音方言字義解)로 나오므로 그 이전에는 ‘*오라바’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손아래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남아 있다. 여자 동기와 같은 항렬의 손아래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앙어에서 ‘오라바’가 [男兄]의 의미만을 갖는다면 제주도 방언에서는 [男弟]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결국 ‘오라방’은 여자 동기가 손아래의 남자 동기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다. 형태와 의미면에서 중앙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림면 동명리에 사는 변중립(66세) 제보자에게 “여기서는 ‘남동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 여기선 ‘오라방’이라고 불렀습니다.”(아, 여기선 오라방이라고 부른다.)라고 대답을 하여 ‘오라방’이 ‘남동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오라방’은 본래 평칭의 호칭어지만, 지칭의 기능으로도 쓰이고 있다.

다음 (38)ㄱ의 ‘오라방’은 호칭으로, (38)ㄴ의 ‘오라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 (38) ㄱ. “오라방! 진희가 영화보러 가젠 험신디 어땡 할꺼? 영화보러? 나 오늘 편의점 아르바이트 있는 날이라 못 가는디 나중에 가자게?”(오라방? 진희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꺼? 영화 보러? 나 오늘 편의점 아르바이트 있는 날이라 못 가는데 나중에 가자.)
- ㄴ. “애경아? 우리 내일 영화보러 감신디 니네 오라방한테 같이 가젠 ㄹ라보라? 무사 우리 오라방이랑 가젠 허텐?”(애경아?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는데 니네 남동생한테 같이 가자고 말해봐라? 왜 우리 남동생이랑 같이 가려고 하니?)

‘오라방’은 손아래의 남자 동기에게만 쓰이지 않고 손아래의 남자 친족에게도 두루 쓰인다. 조금 가까운 손아래의 남자 친족이라면 그저 ‘오라방’으로,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손아래의 남자친족이라면 ‘○○50)오라방’ 정도로 부르고 있다.

아울러 ‘오라방’은 친족 범주에서 벗어나 일반인에게도 쓰인다. 친구의 남동생이나 이웃집 남동생에게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누게 오라방’, ‘○○오라방’의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오라방’의 쓰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오라방’ 대신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다.

50) ‘○○’은 이름을 지시한다.

제주도에서는 ‘남동생’을 서열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하여 쓰고 있다. 여러 명의 남동생이 있다면 ‘큰오라방, 셋오라방, 말젓오라방, 작은오라방’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큰, 셋, 말젓, 작은’과 같은 접두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이나 ‘누나’도 이들을 이용하여 구별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는 서수 방식이 참 독특하다. 이 서수 방식은 친족어휘 전반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兄弟] 관련 친족어휘에서 더욱 독특하다. ‘형제’들의 순서는 ‘큰, 셋, 말젓, 작은 …’으로 명명한다. 이는 중앙어에서 말하는 넷째까지의 순서이다. 그렇다면 넷째 이후 다섯째는 무엇일까?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로 ‘다섯째’를 명명하는 친족어휘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子女’들의 수가 ‘넷’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것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 탓도 있지만, 넷 이상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아이들을 잃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넷’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큰, 셋, 말젓, 작은 …’과 같이 ‘넷째’까지만 명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들이 ‘말젓’ 이상일 때는 ‘큰’과 ‘작은’을 이용하여 세분하였다. ‘큰셋아들, 작은셋아들, 큰말젓아들, 작은말젓아들 …’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나 아홉째를 만들었는데, 이는 짝수보다는 홀수를 만드는 데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기능과 용법이 여타 지역 방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족어휘 전반에서 이 ‘큰, 작은, 셋, 말젓 …’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父母] 관련 친족어휘에서 [子女]에 이르는 친족어휘까지 이 서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독특하고 다양한 제주도 방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6.1.3. 오라바니

‘오라바니’는 중앙어 ‘오라버니’에 대응된다. ‘오라바니’는 평칭으로서 호칭과 더불어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현대국어 ‘오빠’는 중세국어 ‘*오라바’에서 ‘올바>*오바>옵바’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조항범 1996:328). 물론 현대국어의 ‘오빠’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동기에게만

쓰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오라바니’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9) “지원아! 니 셋오라바니 군대 제대해시냐 안해시냐? 아, 셋오라바니 마썸 벌써 제대해수다.”

(지원아! 네 둘째 오빠 군대 제대했니? 안했니? 아, 둘째 오빠요 벌써 제대했어요.)

성산면 성읍리 민속 마을 내에 사는 조운수(61세) 제보자는, “여기선 ‘오빠’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 “아, 여기선 ‘오라바니’라고도 하고 조금 노평 ‘오라바님’이라고 함신다.”(아, 여기선 ‘오라바니’라고 하고, 조금 높여서 ‘오라바님’이라고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로 보아, 제주도 방언의 ‘오빠’ 관련 친족어휘로는 ‘오라바니’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6.1.4. 오라바님

‘오라바님’은 중앙어 ‘오라버님’에 대응된다. ‘오라바님’은 ‘오라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구조이다.

‘오라바’의 본래 의미는 [男兄弟]이다. 아울러 [男兄]과 [男弟]를 모두 지시할 수도 있었다. ‘오라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존칭형 ‘오라바님’도 [男兄弟]와 더불어 [男兄]과 [男弟]의 의미를 아울러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라바님’은 근대국어 후반에 오면 ‘오라버님’으로 그 어형이 약간 달라진다. 그리고 [男兄弟], [男兄], [男弟]의 의미에서 [男兄弟], [男弟]의 의미를 잃고 [男兄]만으로 의미가 축소된다. 제주도 방언의 ‘오라바님’도 현대국어의 ‘오라버님’과 같이 [男兄]의 의미로만 쓰인다.

조천면 함덕리 김병석(79세) 제보자는, “여기선 ‘오빠’를 높여서 부를 땐 무엇이라고 부르니까?”라는 질문에, “아, 그거야 오라바님이라고 하지.”(아, 그거야 오라바님이라고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로써 ‘오라바님’이 ‘오빠’를 높여서 부르는 존칭형으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라바님’은 존칭으로 호칭과 더불어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다음 (40)ㄱ의 ‘오라바님’은 호칭으로, (40)ㄴ의 ‘오라바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0) ㄱ. “오라바님! 옛날 군대 간 일 그라줍써? 주원이한테 그라달랭 허라게 제대한지 얼마 안되시
난 잘 알꺼 아니?”(오빠! 옛날 군대 간 일 말해주세요? 주원이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잘 알 것이다.)

ㄴ. “지원아! 니 큰오라바님 군대 제대행 요즘 뭐 햄시니? 다시 공부행 취직한뎡 흡네다.”(지
원아! 네 큰오빠 군대 제대하고 요즘 뭐하니? 다시 공부해서 취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오라바님’이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다. 나이든 세대에 국한되어 쓰일 뿐이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男子同氣]들을 부를 때 서열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하여 쓰고 있다. 네 명의 [男子同氣]가 있다면 ‘큰오라니, 셋오라바니, 말젧오라바니, 죽은오라바니’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큰, 셋, 말젧, 죽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님’이 결합된 ‘오라바님’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서도 제주도 방언의 특별한 서수 방식은 매우 돋보인다.

지금까지 언급한 [男子同氣]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지칭	호칭
평칭	오래비 오라방 오라바니	오래비 오라방 오라바니
존칭	오라바님	오라바님

[표 11]

2.6.2. [女子同氣] 관련 친족어휘

남자 동기가 여자 동기를 부르거나 이르는 친족어휘를 [女子同氣] 관련 친족어휘라고 한다. [女子同氣]는 화자인 남성 동기로 보아서는 性은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다(조항범 1996:294).

제주도 방언의 [女子同氣] 관련 친족어휘에는 ‘누의, 누니, 누나, 누님’이 있다.

2.6.2.1. 누의

‘누의’는 중앙어 ‘누이’에 대응된다. ‘누의’의 어원은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 중세국어의 ‘누의’는 남자 동기(同氣) 쪽에서 보아 여자 동기 전체, 곧 ‘姉妹(자매)’를 총칭한다. 그러면서도 ‘姉(자)’나 ‘妹(매)’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 ‘누의’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가 ‘누의님’이다. ‘누의님’은 곧 ‘누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중세국어의 ‘누의’와 ‘누의님’은 19세기 말 이후 ‘누이’와 ‘누님’으로 변한다. 그런데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이나 <朝鮮語辭典>(1938)에는 여전히 ‘누의’를 표제어로 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표제어로 ‘누이’도 싣고 있지만 이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큰사전>(1947)에서는 ‘누이’를 표제어로 삼고 ‘누의’는 ‘누이’의 옛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은 ‘누이’가 점차 ‘姉(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妹(매)’를 지시하기 위한 ‘누이동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 것도 이 ‘누이’가 ‘姉(자)’ 쪽으로 의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조항범 2009:183).

중세국어의 ‘누이’가 ‘姉(자)’ 쪽으로 의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방언의 ‘누의’도 ‘누이’ 곧 ‘妹(손아래 누이)’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 변화의 길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중앙어의 ‘누이’나 제주도 방언의 ‘누의’가 모두 ‘여동생’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3세) 제보자는, “여기선 남자 同氣가 손아래 여자 同氣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계난, 우리 아방 어명도 어릴 땐 ‘누의’라고 했넌. 경허난 요즘 우리 나이 사름들도 그냥 누의 누의 한다.”(그러니까, 우리 아방 어명도 어릴 때 ‘누의’라고 했다고 한다. 요즘 우리 나이 사름들도 누의 누의 한다.)라고 대답

을 하여 ‘누의’가 ‘여동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의’는 평칭으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는 중앙어의 ‘누이’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모두 갖는 것과 같다.

다음은 ‘누의’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1) “우리 아빤이 누의를 씨집 보내젠 총가글 보랭 가수다.”(우리 아버지가 누이를 시집보내기 위해 총각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누의’는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요즘 ‘누의’라는 말은 나이든 세대에서만 들을 수 있고, 젊은 세대에서는 ‘여동생’, 또는 ‘아시⁵¹⁾’를 쓰고 있다. ‘누의⁵²⁾’라는 옛말 대신 “내 여동생이다.”, 혹은 “내 아시다.”라고 한다.

2.6.2.2. 누니

‘누니’는 중앙어 ‘누나’와 지시 의미가 같다. ‘누니’의 어원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누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누의님’이 근대국어 후반에 와서 ‘누의님>누님’과 ‘누님>누니’라는 뚜렷한 형태 변개를 겪었으며, 의미 변화까지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누니’는 곧 사라지고 현대국어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朝鮮語辭典 301>(1938)에서는 ‘누니’를 ‘누나’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으며, ‘누나’를 존대하여 부를 때 ‘누니’를 쓰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니’는 기왕의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만, 제보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다. 또한 ‘누니’가 순위 여자 동기를 이르는 ‘누나’의 의미인지, 아니면 손아래 여자 동기를 이르는 ‘여동생’의 의미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제주도 방언의 ‘누니’도 중앙어와 비슷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51) ‘아시’는 동성끼리 사용하는 호칭이다. 즉, ‘姉妹’ 간에 있다면 여동생을 가리켜 ‘내 아시야’라고 소개할 수 있다.

52) 제주도 전 지역을 ‘서북쪽방언, 동북쪽방언, 서남쪽방언, 동남쪽방언’으로 나누었을 때, 필자가 답사한 ‘한림과 안덕지역’은 ‘누의’를, ‘함덕과 성산지역’ 일대는 ‘누이’를 쓰고 있다. 이러한 이중모음 현상은 지역 차를 드러낸 것이지만 나이든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발음상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누나’는 지금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중세국어의 ‘누의’나 ‘누의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女子同氣]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나’도 처음에는 [女子同氣] 전체에 두루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누나’는 지금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女兄]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손아래 사람에 대한 예법이 퇴색하여 손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지시하는 친족어휘의 용법이 사라지면서 ‘누나’에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위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 보았을 때, 제주도 방언의 ‘누니’도 손위의 여자 동기를 이르는 ‘누나’와 지시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앙어의 ‘누나’는 평칭으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누니’도 평칭의 호칭과 지칭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 제보자에게 ‘누니’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누니’가 ‘누나’를 이르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동생’을 이르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누니?’ 글썽 옛날 어른들한테도 잘 못 들어 봐신디, ‘누니’가 ‘누나’ 아니?”(누니? 글썽 옛날 어른들한테도 잘 못 들어 봤는데, ‘누니’가 ‘누나’ 아니냐?)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다음은 기왕의 자료집에 소개되고 있는 ‘누니’가 쓰인 예이다.

(42) “영덕누니가⁵³ 어명사 시무시 구저싱고 흐민 이녁 누네 흐꼬미라도 거시러지민 그 거시러진 사름 뒤틸 어디꺄장이라도 조창 땡기명 몽닐 부리기로 하근 사름드리 이 영덕누니를 피하영 땡기기에 즈르지엿쩡 흡네다.(영덕누니가 어찌야 맘씨가 곳있는가 하면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러지면 사름 뒤에를 어데까지라도 따라서 다니면서 몽니를 모든 사름들이 피하여서 다니기에 바빴다고 합니다)(답라어로 따낸 제주도 옛말사전 <진성기 2008>)

위의 용례로 보아, ‘누니’는 남자 동기가 손위의 여자 동기를 부를 때 쓰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요즘 제주도에서 ‘누니’라는 말은 들어 볼 수가 없다. 다만, 기왕의 자료집에 남아 있을 뿐이다(진성기 2008).

2.6.2.3. 누나

‘누나’는 중앙어 ‘누나’와 지시의 의미가 같다. ‘누나’는 옛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19

53) ‘영덕누니’의 ‘영덕’은 ‘人名’이다.

세기 말의 <韓英字典 378>(1897)에서야 ‘누나’가 보인다. 그 이전에는 ‘누나’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누의>누이, 누의님>누이님’ 등이 쓰였다. 그런데, <朝鮮語辭典>(1938)에 ‘누나’의 어원을 밝혀줄 수 있는 ‘누니’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주목된다. ‘누니’는 존칭형 ‘누님’에서 말음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아바님’이 ‘아바니’로, ‘어마님’이 ‘어마니’로 변하듯이 ‘누님’도 ‘누니’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누니’에 호격조사 ‘아’가 결합된 ‘누니아’가 줄어든 어형이 바로 ‘누나’이다. 이는 마치 ‘누이’에 호격의 ‘아’가 결합된 뒤 줄어들어 ‘누야(방언형)’가 만들어지는 현상과 같다(조항범 2009:44).

‘누나’는 지금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중세국어의 ‘누의’나 ‘누의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女子同氣]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나’도 처음에는 [女子同氣] 전체에 두루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누나’⁵⁴⁾는 지금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女兄]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손아래 사람에 대한 예법이 퇴색하여 손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지시하는 친족어휘의 용법이 사라지면서 ‘누나’에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누나’는 남자 同氣가 손 위의 여자 同氣를 이르는 말이다. 곧,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는 친족어휘다. 제주도 방언의 ‘누나’도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女兄]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어의 ‘누나’가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방언의 ‘누나’도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보아 의미 변화의 길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내의 조윤수(61세) 체보자는, “여기선 손위의 여자 동기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옛날 우리 하르방 말로는 누나 누나 경 불렀댜. 계난 우리 나이 사름들도 그냥 누나 누나 허주께.”(옛날 우리 하르방 말씀으로는 누나 누나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나이 사름들도 누나 누나 한다.)라고 진술을 하여, ‘누나’가 손위의 여자 동기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나’는 평칭으로 호칭의 기능을 보인다. 물론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다음 (43)ㄱ의 ‘누나’는 호칭으로, (43)ㄴ의 ‘누나’는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54) ‘누나’의 의미 적용 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趙恒範(1996:310) 참조.

(43) ㄱ. “누나! 군대 간 주원이 성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집 가라게?”(누나! 군대 간 주원이 형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집 가.)

ㄴ. “아망! 누나도 이신디 무사 누의 먼저 씨집 보내쨌 험수가? 아, 니네 누나는 군대 간 주원이 기다렵자나.”(아버지! 누나도 있는데 왜 누이 먼저 시집보내려고 하세요? 네 누나는 군대 간 주원이를 기다리고 있잖니.)

제주도 지역에서는 ‘누나’를 서열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하여 쓰고 있다. 네 명의 누나가 있다면 ‘큰누나, 셋누나, 말쨌누나, 죽은누나’로 구별하여 쓰는 것이다. 호칭 순서에 따라 ‘큰, 셋, 말쨌, 죽은’을 이용하고 있는데, ‘누의’나 ‘누님’도 이들을 이용하여 구별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6.2.4. 누님

‘누님’은 중앙어 ‘누님’과 같은 형태이다. ‘누님’은 15세기 문헌에 ‘누의님’<月印釋譜 2:6>으로 나온다. ‘누의님’은 평칭의 ‘누의’에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 ‘누의님’에서 제2음절의 ‘이’가 탈락한 어형이 ‘누님’이다(조항범 2009:181).

‘누님’은 19세기 말 이후 등장한다. 그런데 ‘누님’은 그 어형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의미도 변화되어 주목된다. 그것은 [女兄弟]와 [女弟]라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서 ‘누님’이 담당했던 [女兄弟]와 [女弟]라는 의미가 사라진 것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존칭형 친족어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누님’이 [女兄弟], [女兄], [女弟]의 세 가지 지시 의미 영역 중 [女兄] 쪽으로 굳어진 것은 누님을 표현하기 위한 존칭형 친족어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님’은 호칭어로서 존칭어이다. 존대 표시가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姉(자)’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누님’이 중앙어에도 ‘누님’으로 남아 있고, 제주도 방언에도 ‘누님’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의 길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누님’은 남자 동기가 손위의 여자 동기를 부를 때 쓰는 친족어휘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 제보자는, “누나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 그거야 누님 누님 허지. 육지 사름들도 다 경허던데.”(아 그거야 누님

누님 한다. 육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르던데.)라고 대답하여 ‘누님’이 순위의 여자 동기를 부르는 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님’은 존칭의 호칭어지만 지칭의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는 중앙어의 ‘누님’이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다음 (44)ㄱ의 ‘누님’은 호칭으로, (44)ㄴ의 ‘누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4) ㄱ. “누님! 비 오는데 어디 감수강? 밭에 지슬 캐러 감췌. 아, 지슬 벌써 캬수강? 아, 요즘이 켈 때 아니?”(누님!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밭에 감자 캐러 간다. 아, 벌써 감자 캐세요? 아, 요즘이 감자 켈 때 아니냐?)

ㄴ. “아, 삼춘 오랫동안이우다 양? 동희누님은 잘 이수가? 가이? 스나히가 어성 시집도 못가고집에 이서.”(아, 삼춘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동희누님은 잘 있지요? 개? 남자가 없어서 시집도 못 가고 집에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누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두루 사용하고 있는 친족어휘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누님’의 서열 방식이 중앙어의 그것보다 더 독특하다. ‘누님’에 ‘큰-, 작은-’과 같은 접두 요소가 결합하면서 ‘큰누님, 작은누님’이 되는데, ‘큰누님, 셋누님, 말췌누님, 작은누님’으로 서열을 정해서 부르고 있다.

‘누님’은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활발하게 쓰인다. 예를 들면, ‘서귀포누님, 신제주누님’ 등은 친족원은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어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女子同氣] 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나타내면 [표 12]와 같다.

	지칭	호칭
평칭	누의 누니 누나	누의 누니 누나

존칭	누님	누님
----	----	----

[표 12]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앙어와 제주도 방언에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친족어휘를 목록화하면 [표 13]과 같다.

명칭	구분	중앙어의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父		아버지	아방
母		어머니	어명
組父		할아버지	하르방
組母		할머니	할망
伯叔父		큰아버지/작은아버지	큰아방/작은아방
姑母		고모	고모
兄		형	성
弟		남동생	오라방
男子同氣		오빠	오라바니
女子同氣		누나	누나

[표 13]

3.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징

3.1. ‘ㅇ’ 첨가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에는 음절말에 ‘ㅇ’이 첨가된 어휘가 적지 않다. 대체로 평칭의 호칭어에 ‘ㅇ’이 첨가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이 아닌가 한다.

이를 부류별로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친족 명칭	‘ㅇ’첨가된 친족어휘
[父]	아방
[母]	어멍
[祖父]	하르방
[祖母]	할망
[伯叔父]	아지방
[伯叔母]	아지망
[男子同氣]	오라방

[표 14]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 ‘ㅇ’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정승철(1998:137)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ㅇ’이 포함되어 있는 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⁵⁾ 자음 첨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라는

55) 제주도 방언에는 ‘ㅇ’을 덧붙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ㅇ’이 포함되어 있는 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형태를 ‘양/영’구조로도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ㄱ. 아버지, 아방(아버지), 어마니, 어멍(어머니)
- ㄴ. 감이영 배영 사과(감과 배와 사과)

점에서 주목된다.

‘아방’은 [父]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이는 중앙어 ‘아빠’에 대응된다. ‘아빠’는 ‘아바>압바’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어멍’은 [母]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어마’에 ‘ㅇ’이 첨가된 ‘어망’에서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한 것이다. 중앙어에는 ‘어마’에 ‘ㅁ’이 첨가된 ‘엄마’로 남아 있다.

‘하르방’은 [祖父]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하르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중앙어에는 ‘하르방’에 대응되는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지 않다. ‘할바마마’의 ‘할바’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할바’는 ‘한아바>*한으바>*한바’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할망’은 [祖母]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할마’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이에 대응하는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마마마’의 ‘할마’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할마’는 ‘*한아마>*한으마>*한마’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아지방’은 [伯叔父]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지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아지방’에 대응되는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지망’은 [姑母]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지마’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이에 대한 중앙어는 ‘아줌마’이다. ‘아줌마’는 ‘*아자마>아즈마>아즈마>아주마’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오라방’은 [男子同氣]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오라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이는 중앙어의 ‘오빠’에 대응된다. ‘오빠’는 ‘오라바>올바>*오바>옵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3.2. ‘ㅏ>ㅑ’ 변화의 양상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서는 주로 제2음절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난다. 이들 유형을 부류별로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ㄷ. 감광 배광 사과(감이랑 배랑 사과)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주도 방언에는 서술어에 ‘ㅇ’을 포함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 강정희(1988:181)은 서술어에 ‘ㅇ’을 포함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친족어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방언에서 ‘ㅇ’첨가 현상은 여타 지역 방언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유형	중양어	제주도 방언
[父]	아바님>아버님 아바지>아버지	아바님 아바지
[母]	어마님>어머님 어마니>어머니	어마님 어마니

[표 15]

[父]의 경우를 보면, 중양어의 ‘아버님’은 ‘아바님’에서 ‘ㅏ>ㅑ’ 변화를 겪은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아바님’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제주도 방언의 ‘아바님’은 기원형인 ‘아바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바님’이 ‘아버님’에서 제2음절의 ‘ㅏ’가 ‘ㅑ’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보인다.

‘ㅏ>ㅑ’ 변화는 국어 친족어휘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예컨대, ‘아바님’에 대한 ‘아버님’, ‘어마님’에 대한 ‘어머님’, ‘어마니’에 대한 ‘어머니’, ‘아바지’에 대한 ‘아버지’, ‘할마님’에 대한 ‘할머님’, ‘어마님’에 대한 ‘어머님’ 등 다수이다(조항범 1996:372).

[母]계 친족어휘인 ‘어마님’도 모음 변화가 일어나기 전단계로 판단된다. 제주도 방언의 ‘어마님’은 중양어 ‘어머님’의 경우처럼 제2음절의 ‘ㅏ>ㅑ’ 변화를 겪지 않았다. ‘어마님’도 기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칭형인 ‘어멍’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르다. 어멍은 ‘ㅏ>ㅑ’ 변화의 예외가 있다. 즉, ‘어마>어망>어멍’의 과정에서 보듯, ‘어마>어망’에서는 제2음절의 변화가 목격되지 않지만 ‘어망>어멍’에서는 제2음절의 변화가 목격된다. [母]계 친족어휘인 ‘어멍’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이다.

3.3. 평칭의 호칭어 존속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는 중양어에서는 사라진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기도 하

다.

명칭	중양어의 평칭의 호칭어		제주도 방언의 평칭의 호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父]	아바	아빠	아방
[母]	어마	엄마	어멍
[祖父]	한아바	—	하르방
[祖母]	할마	—	할망
[伯叔父]	아자바/아즈바	—	아지방
[姑母]	아자마/아즈마	아줌마	아지망
[男子同氣]	오라바	오빠	오라방

[표 16]

위의 표에서 보듯, 중양어의 경우 [祖父], [祖母], [伯叔父]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지 않다. [祖父], [祖母]의 경우는 ‘할바마마’, ‘할마마마’에서 확인되는 ‘할바’, ‘할마’가 사라진 것이다.

그 반면 제주도 방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친족 부류에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다. 그것도 기원형에 ‘ㅇ’이 첨가된 형태로 남아 있다. ‘ㅇ’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 중양어에 남아 있는 평칭의 호칭어와 크게 다른 점이다.

3.4. 의미 적용 범위의 확대- ‘삼촌’, ‘아시’

제주도 방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친족어휘는 바로 ‘삼촌’이다. 이 ‘삼촌’은 [伯叔父]나 [故母], 또는 화자를 중심으로 3촌 관계에 있는 모든 친족원을 아우르는 호칭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 동네의 어른이나 굳이 촌수를 따져 부르기에 어색한 이웃에게도

쓰이고 있다. 의미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다.

중양어의 ‘삼촌’과 제주도 방언 ‘삼촌’의 의미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

중양어의 ‘삼촌’	제주도 방언의 ‘삼촌’
*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 *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의 남동생	* 큰(죽은)아버지 * 고모(부) * 이모(부) * 외삼촌(외숙모) *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이웃 스촌 * 부모님 항렬의 모든 친족원

[표 17]

중양어에서 ‘삼촌’의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님의 남동생’을 지시하는 반면, 제주도 방언의 ‘삼촌’의 의미는 대부분의 친족원을 지시한다.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화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⁵⁶⁾ 이것은 중양어를 비롯한 여타 지역 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면모이다.

‘삼촌’은 의미와 기능면에서 중양어는 물론 여타 지역 방언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삼촌’의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현대국어에서도 그 기능과 용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것은 중양어에서 [伯叔父]나 [故母] 관련 친족어휘가 구체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독특하고 주목되는 친족어휘 중에는 ‘삼촌’ 이외에도 ‘아시’가 있다. 제주도 방언의 ‘아시’는 중양어의 ‘아우’와 대응된다. 제주도 방언의 ‘아시’가 특별한 것은 ‘아시’가 친족어휘로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는 동성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또한, ‘아시’는 여성의 입장에서 손

56) 현기영(1979), 『순이 삼촌』에서는 ‘삼촌’이 남성이 아닌 여성을 가리킨다.

아래 [女子同氣]에게도 쓸 수 있지만, 남편의 동생들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남편의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가리켜 ‘아가씨’나 ‘도련님’으로 부르지 않고, “내 아시다”, 혹은 “○○야”라고 하여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남편의 동생들에게 “○○야”라고 하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한동네에서 ‘웬당’으로, 혹은 친구 사이처럼 같이 자랐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는 여성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여타 지역 방언과는 대조적이다. 제주도에서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그것보다 더 강하다. ‘삼춘’이라는 호칭어가 여성에게도 적용되고, ‘아시’의 쓰임이 여성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4.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그 형태를 분석하고 의미를 구명한 다음 친족어휘로서의 기능과 등급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친족어휘로서의 특징도 밝혀보았다. 앞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親戚]을 뜻하는 친족어휘에는 ‘성펜켄당, 외펜켄당, 시켄당, 처켄당, 방상’ 등이 있다. 제주도에서 [親戚]을 뜻하는 친족어휘는 주로 ‘켄당’이라고 한다. 이는 중앙어 ‘켄당’에 대한 방언형이다.

(2) [父] 관련 친족어휘에는 ‘아뻬, 아방, 아버지, 아바님’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방’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아방’은 새로운 친족어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母] 관련 친족어휘에는 ‘어뻬, 어멍, 어머니, 어마님’ 등이 있는데, ‘어멍’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어멍’ 역시 새로운 친족어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 [祖父] 관련 친족어휘에는 ‘하르비, 하르방, 하르바지, 하르바님’ 등이 있다. ‘하르방’은 제주도 방언에서 [祖父] 관련 친족어휘로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르방’은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 ‘돌하르방’이 그 대표적이다.

(5) [祖母] 관련 친족어휘에는 ‘헬미, 할뻬, 할망, 할마니, 할마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할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며 그 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 ‘할망’은 제주도의 전설이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별칭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친근감을 주는 어휘로 인식되고 있다.

(6) [伯叔父]를 지시하는 친족어휘에는 ‘큰아방’과 ‘삼춘’이 있는데, 여기서 ‘삼춘’은 친족어휘 이외에도 일반적인 의미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7) [姑母]를 지시하는 친족어휘로는 중앙어와 같은 ‘고모’를 쓰고 있는데,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중에서 중앙어와 같은 지시 의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兄弟]를 나타내는 친족어휘에는 ‘성’과 ‘아시’가 있고, [同氣]를 뜻하는 친족어휘로는 ‘오라바니’와 ‘누나’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2장의 [표 13]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주도 방언은 음절말의 ‘ㅇ’첨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오라방, 아지방, 아지방’은 음절말에 ‘ㅇ’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친족어휘다. 이것은 여타 지역 방언과는 차별화된 아주 독특한 것이다. 또, 중앙어의 변화와는 달리 제주도 방언은 모음의 ‘ㅏ>ㅑ’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어의 ‘아바님>아버님’, ‘어마님>어머님’, ‘아바지>아버지’, ‘어마니>어머니’ 등은 ‘ㅏ>ㅑ’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주도 방언의 [父母]·[祖父母] 관련 친족어휘는 ‘아바님, 어마님, 하르바님, 할마님’처럼 기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어멍’은 이례적으로 ‘ㅏ>ㅑ’ 변화가 일어나 더욱 주목된다.

제주도 방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친족어휘는 바로 ‘삼춘’이다. ‘삼춘’의 기능과 용법은 중앙어는 물론 여타 지역 방언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인데, 특히, ‘삼춘’이 여성 화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가 육지 방언에 비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친족 호칭 체계를 이루는 친족원 구성 자체가 특이한 형성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연구 논문

- 姜信沆(1967), 「現代國語의 家族 名稱에 對하여」, 大同文化研究 4.
- 강영봉(2007),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민속박물관.
-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5), 『제주방언 형태변화연구』, 도서출판 역락.
- 국립국어원(2007), 『방언 이야기』, 국어자료총서 1, 태학사.
- 郭忠求(1993), 「咸鏡道 方言의 親族名稱과 그 地理的 分化」, 震檀學會 76.
- 金光雄(2001), 『濟州 地域語의 音韻論』, 濟州大學校 出版部.
- 김영배(1992), 『南北韓의 方言 研究』, 慶雲出版社.
- 김창민(1992), 「친족으로서의 범주-제주도의 켄당」, 한국문화인류학 제24집, 한국 문화 인류학회.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文武永(1989), 『平安方言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 _____ (1990), 「親族語彙」,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大 國語硏究會.
- 문순덕(1998/1999), 「제주도 방언 '시다'의 문법화 현상」, 민속학술자료총서 197, 방언
2. 민속학술자료총서 198(2002), 「방언1, 방언2, 방언3」, 우리마당 터.
- 문세영(1938), 『朝鮮語辭典』.
- 박용후(1988), 『濟州方言研究(資料篇)』,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왕한석(1988), 「한국 친척용어의 내적구조」, 한국문화인류학 20.
- 李基文(1983), 「'아자비'와 '아즈미」, 國語學 12.
- 이기영(2001), 「江華地域 親族 呼稱語 및 指稱語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李相揆(1984), 「慶北地方의 親族名稱」, 女性問題研究 13.
- 이상규, 백두현 외(1996), 『내일을 위한 방언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이상규(2003), 『국어방언학』, 학연사.

- 이익섭(1976), 「'아재'考: 方言調査 方法의 한 反省」, 東亞文化 13.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_____ (1998), 「제주도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8권 4호 겨울호, 국립국어원.
- 정중호(1990), 「韓國 親族呼稱의 意味構造와 社會的 使用에 關한 研究」-安東地方
의한 村落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 濟州道(1995), 『濟州語辭典』.
- 趙恒範(1996), 『國語 親族語彙의 通時的 研究』, 태학사.
- _____ (2009),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 진성기(2008), 『담라어로 따낸 제주도 옛말사전』, 제주민속연구소.
- 최명옥(1982a), 「親族名稱의 意味分析과 變異, 그리고 變化에 대하여」, 肯浦 趙高教授
華甲記念 國語學論叢.
- _____ (1982b), 「親族名稱의 意味分析과 變異 그리고 變化에 대하여-慶北 北部 地域
의 班村語를 中心으로」, 한국어 방언 연구의 실제, 태학사.
- _____ (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재석(1979), 『濟州道の 親族組織』, 一志社.
- 현기영(1979), 『순이 삼춘』, 창작과 비평사.
- 玄平孝(1962), 『濟州道方言研究(資料篇)』, 精研社.
- _____ (1985), 『濟州道方言研究(論考篇)』, 二友出版社.
- _____ (1956), 「濟州道方言의 研究와 特徵에 대하여」, 국어의 지역 방언(2), 국어학회.
- 玄平孝 외(1995), 『濟州語辭典(濟州大學校博物館篇 : 濟州方言研究會)』, 濟州道.

□ 자료

- 국립국어원(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3,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태학사.
- 국립국어원(2006, 2007),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2007),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방언 검색 프로그램.